

가천대 약술형논술

국어

목차

2026학년도 자연계 C형	5
문항 1	5
문항 2	7
문항 3	9
문항 4	10
문항 5	12
문항 6	15
2026학년도 자연계 E형	16
문항 1	16
문항 2	18
문항 3	20
문항 4	22
문항 5	24
문항 6	27
2026학년도 자연계 F형	28
문항 1	28
문항 2	30
문항 3	32
문항 4	35
문항 5	37
문항 6	39
2025학년도 자연계	41
문항 1	41
문항 2~3	43
문항 4	46
문항 5	49
문항 6	52
2024학년도 인문계 A형	55
문항 1	55
문항 2	57
문항 3	59
문항 4	60
문항 5	62
문항 6	63
문항 7	65

문항 8	68
문항 9	69

2024학년도 인문계 B형 71

문항 1	71
문항 2	73
문항 3	75
문항 4	76
문항 5	78
문항 6	80
문항 7	81
문항 8	83
문항 9	84

2024학년도 자연계 C형 86

문항 1	86
문항 2	88
문항 3	90
문항 4	91
문항 5	93
문항 6	95

2024학년도 자연계 D형 97

문항 1	97
문항 2	99
문항 3	101
문항 4	102
문항 5	104
문항 6	106

2024학년도 자연계 E형 108

문항 1	108
문항 2	110
문항 3	112
문항 4	113
문항 5	115
문항 6	117

2024학년도 자연계 F형 119

문항 1	119
문항 2	121
문항 3	123
문항 4	124
문항 5	126
문항 6	128

2024학년도 자연계 G형	130
문항 1	130
문항 2	132
문항 3	134
문항 4	136
문항 5	138
문항 6	140

2026학년도 자연계 C형

문항 1

※ 다음은 학생이 발명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의 날에 하는 발표라 더욱 뜻깊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명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제시) 영화에 나오는 이 비행기는 급선회, 급상승, 급하강은 물론이고 정지 비행에서 후진 비행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잠자리가 비행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구조, 구성 물질, 행동 등을 모방하여 활용하는 생체 모방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을까요? (슬라이드 제시) 이 방탄조끼는 거미줄을 구성하는 성분 중 글리신을 이용해 만든 것인데 강철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어 피부 표면을 모방해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설계된 수영복입니다. (청중의 반응을 보고) 사실은 더 많은 사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소개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체 모방 기술이 왜 중요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는 가혹한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약 35억 년에 걸쳐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생물체의 구조, 구성 물질, 행동 등은 지구 환경에 최적화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구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것들이므로 이를 모방하는 생체 모방 기술은 지구 환경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명의 여러 가지 기법들에서 모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물체를 잘 관찰하여 우리가 모방해 볼 만한 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항 1] <보기>는 학생이 수립한 발표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생체 모방 기술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 개념을 정의하여 제시한다.
- ② 특정 과학 이론을 근거로 생체 모방 기술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이처럼, 있습니다(.)
- ② 따라서, 것입니다(.)

해설

발표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고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구조, 구성 물질, 행동 등을 모방하여 활용하는 생체 모방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와 같이 개념의 정의를 보여주었다.
- ②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따라서 현존하는 생물체의 구조, 구성 물질, 행동 등은 지구 환경에 최적화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구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것들이므로 이를 모방하는 생체 모방 기술은 지구 환경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에서는 진화론이라는 특정 과학 이론을 근거로 하여 생체모방기술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이처럼, 있습니다(.)	5점
②	따라서, 것입니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항 2~3)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 특정한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이나 소금은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식품 첨가물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식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중 식품에 사용되었으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식품에 닿는 기구나 식품 용기 및 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질 중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식품 첨가물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은 여러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연에 있는 자원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정제하거나 발효하여 얻을 수도 있고,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은 식품 첨가물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자연에서 구할 수 없는 물질일 수도 있다.

- [A] 식품 첨가물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첫째로 특정한 식품 가공 공정에 꼭 필요하여 식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껌의 제조에는 씹을 때 점성이 있으며 녹지 않는 물질인 껌 기초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며, 두부의 제조에는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을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응고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다. 둘째로 식품의 보존성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인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여 식품 내 지방질의 산화로 인한 독성 물질의 생성을 막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식품에 대한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인 향료나 향미 증진제를 사용하여 식품의 향미를 개선하거나, 착색료를 첨가하여 식품의 색깔을 개선해 먹는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로 식품 자체에 부족하게 포함된 영양소나 식품 가공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유제품 가공 중 손실된 칼슘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나의 식품 첨가물을 식품 제조 시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또한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 섭취량은 식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 종류별로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등 특정한 물질을 인간이 평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에 섭취 가능한 용량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동안 섭취할 경우에 발생하는 만성 독성을 근거로 산출된 값으로,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 계수 100으로 나눈 값이다. 최대 무독성량이란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며, 안전 계수는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즉 안전 계수는 동물 실험과 실제 개개인에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계수는 동물과 사람의 종간 차이를 10으로 두고 사람 간의 차이를 10으로 두어 두 수를 곱하여 얻는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양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하루 평균이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라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

[문항 2] <보기2>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1>을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1>

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료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사용된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물질을 팽창제라고 하는데, 팽창제가 없으면 일반적인 빵을 제조할 수 없다. 안식향산은 매실 등 열매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식품의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수분 손실을 방지해 보존성을 높이거나 식품의 산도를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보기2>

- <보기1>에 언급된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물질 중, 제시문의 [A]에 언급된 껌 기초제와 사용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①)이다.
- 제시문의 [A]에 언급된 식품 첨가물 중, <보기1>의 안식향산과 사용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②)이다.
- <보기1>의 수산화나트륨이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후 완전히 제거되어, 완성된 식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식품의 제조 과정에 수산화나트륨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③).

<조건>

- ①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보기1>에서 찾아 쓰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제시문의 [A]에서 찾아 쓸 것.
- ③은 ‘-다’의 형식으로 작성하되, 2자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팽창제
- ② 산화 방지제
- ③ 있다

해설

- ① 제시문의 [A]에 언급된 껌 기초제는 특정한 식품 가공 공정에 꼭 필요하여 식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다. <보기1>에 언급된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물질 중 껌 기초제와 사용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여 빵의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팽창제라 할 수 있다.
- ② <보기1>의 안식향산은 식품의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제시문의 [A]에 언급된 식품 첨가물 중, 안식향산과 사용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식품의 보존성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산화 방지제라 할 수 있다.
- ③ 제시문의 1문단에서 완성된 식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중 식품에 사용되었으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1>의 수산화나트륨이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후 완전히 제거되어, 완성된 식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식품의 제조 과정에 수산화나트륨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팽창제	3점
②	산화 방지제	4점
③	있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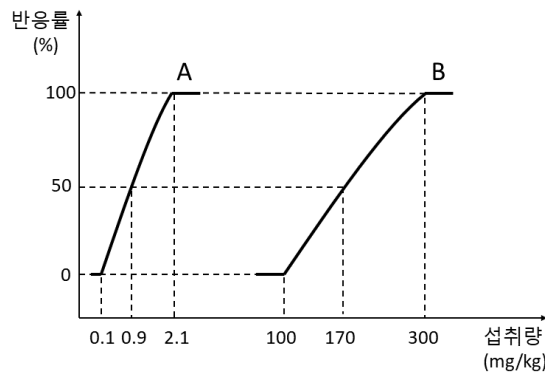
문항 3

※ 앞의 글(문항 2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3] <보기2>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1>에 대해 실시한 탐구활동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보기1>

다음은 물질 A, B를 체중 1kg당 섭취한 양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동물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이다. A는 특정 어류의 내장 등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고, B는 식품 첨가물로 흔히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실험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물질 A, B의 예외적인 유해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기2>

- 물질 A의 최대 무독성량은 체중 1kg당 (①)mg이다.
- 물질 B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②)mg이다.

①: _____

②: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0.1

② 1

해설

① 제시문의 4문단에 의하면 최대 무독성량은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1>을 살펴보면 물질 A의 경우, 동물 실험에서 섭취량이 체중 1kg당 0.1mg까지는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 A의 최대 무독성량은 체중 1kg당 0.1mg이다.

② 제시문의 4문단에 의하면 일일 섭취 허용량은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 계수 100으로 나눈 값이다. <보기1>에서 물질 B의 최대 무독성량은 체중 1kg당 100mg이다. 따라서 물질 B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1mg이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0.1	4점
②	1	6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택배는 화물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의 영업소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화물을 수거하고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한다.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후 이를 분류하여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곳이며,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한다. 이후 터미널 간의 이동인 간선 운송이 이루어지고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운송된 화물은 배송 도착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의 화물을 신속하게 집배송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배송 인프라 등이 고려된다. 먼저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나 터미널의 수와 위치, 담당 권역을 결정하고,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할당한 후 각각의 터미널을 운송 노선으로 연결한다.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은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 P2P(point to point) 유형과 H&S(hub and spoke) 유형,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P2P 유형은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택배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유형이다.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성수기에 특정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터미널로 분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려면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해서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해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권역별 터미널의 수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반면 H&S 유형은 터미널을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로 나눈 후 터미널 간의 위계를 두는 형태로, 상위에는 허브 터미널이 있고 하위에는 서브 터미널이 있다. H&S 유형은 P2P 유형과 달리 출발지 터미널의 모든 화물을 먼저 허브 터미널로 운송한다. 이후 허브 터미널에서 이를 도착지별로 분류하여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한다.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권역의 서브 터미널의 화물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P2P 유형에 비해 전체적인 분류 비용 및 작업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이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 유형과 H&S 유형의 장점만을 골라서 상황에 따라 유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의 기준은 터미널 간의 물동량*이다.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는 경우에는 직접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브 터미널을 거쳐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이다.

*물동량: 물자가 이동하는 양.

[문항 4]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에 대해 실시한 탐구활동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면 P2P 유형과 H&S 유형 중, 간선 운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①) 유형이다.
- 하이브리드 유형에서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물동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분류 작업이 (②)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분류 작업이 (③) 터미널에서 이루어진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H&S (유형)’ 또는 ‘hub and spoke’
- ② 허브 (터미널)
- ③ ‘출발지 (터미널)’ 또는 ‘서브 (터미널)’

해설

- ① 제시문에 의하면 P2P 유형은 출발지 터미널과 도착지 터미널이 직접 연결되고, H&S 유형은 허브 터미널을 거쳐 출발지 터미널과 도착지 터미널이 연결된다. 즉 P2P 유형은 H&S 유형보다 간선 운송 단계의 수가 적다. 따라서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간선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P2P 유형과 H&S 유형 중, 간선 운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H&S 유형이다.
- ②, ③ 제시문의 4문단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유형은 물동량에 따라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는 경우에는 직접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브 터미널을 거쳐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을 운송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유형에서 화물의 분류 작업은 물동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브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이루어진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H&S (유형)’ 또는 ‘hub and spoke’	4점
②	허브 (터미널)	3점
③	‘출발지 (터미널)’ 또는 ‘서브 (터미널)’	3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5~6)

[가]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나]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덴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랑게 뚝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 층 나무도 되고 오 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 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키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해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력무력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

*손아: 손자.

*재공: 지닌 재주로 이룬 공적.

[문항 5] <보기>는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가) 또는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의 일부이기도 하며, 나아가 삼라만상의 본성에 담긴 이치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문재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자연적 시간 질서를 거스르는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작품이고, 이태준의 「화단」은 강제적인 변형을 가하며 화초를 가꾸는 노인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와 「화단」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에 의해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이 모두 나무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에서 화자로 하여금 평범한 가로수들을 ‘불꽃나무’로 인식하게 한 ‘(①)’은/는 이태준의 「화단」에서 석류나무를 두르고 있는 ‘(②)’에 대응되는데, 이들은 모두 자연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화초들에서 글의 소재를 얻은 「화단」에서 ‘(③)’은/는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소재라 할 수 있는데, 글쓴이에게 이 대상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자연물에 비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한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에서 자연적 시간은 인공적인 빛에 의해서 교란당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꼬마전구(들)’ 또는 ‘불’
- ② 철사
- ③ 봉선화

해설

①과 ②는 “인간에 의해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이 모두 나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① 시의 1연 4,5행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에서 나뭇가지마다 매달린 꼬마전구들이 인위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행과 5행의 양행결침의 결과로 “불”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답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이 이문재의 시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에서 전구들이었다면, 이태준의 「화단」에서는 철사로 가지를 “테를” 두른 석류나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필의 화자는 이러한 노인의 작업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③ 수필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해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에서 필자가 석류나무나 장미보다 “봉선화”의 자연스러움을 더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꼬마전구(들)’ 또는 ‘불’	4점
②	철사	3점
③	봉선화	3점

문항 6

※ 앞의 글(문항 5의 제시문 (가), (나))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6] <보기>는 제시문 (가)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해당하는 시행을 (가)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이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는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먼저 ‘(①)’에서는 자연의 시간에서는 해가 지면 곧 어두워지는 것과 달리 도시의 밤 거리가 환히 불을 켜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제시를 통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대 도시 문명의 속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힘이라면, 그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행위들도 일종의 힘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에서 드러난다. 이때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밤의 어둠이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세태가 ‘(②)’에서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해가, 앓는다’ 또는 ‘한밤중에, 있다’
- ② 어둠도, 것일까

해설

- ① 자연의 시간에서는 해가 지면 곧 어두워지는 것과 달리 도시의 밤 거리가 환히 불을 켜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제시는 시의 1연의 시행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앓는다’와 3연의 시행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②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밤의 어둠이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세태는 시의 2연의 1행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둠과 안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무의식을 읽을 수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해가, 앓는다’ 또는 ‘한밤중에, 있다’	5점
②	어둠도, 것일까	5점

2026학년도 자연계 E형

문항 1

※ 다음은 학생이 전문가와 나눈 면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 고등학교 최□□입니다. 학교 신문에 다크 패턴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보내 주신 메일을 보니 기업의 마케팅에 관심이 많더군요. 다크 패턴은 일반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텐데 왜 이 내용을 학교 신문에 게재하려는 건가요?

학생: 다크 패턴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모르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크 패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소개하면 이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그렇군요. 그럼 다크 패턴의 개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다크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학생: 다크 패턴은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는 온라인 쇼핑 기업의 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 비교적 정확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충동 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장치를 다크 패턴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감 압박’과 같은 문구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그러한 문구로 인해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더 교묘한 방식의 다크 패턴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다크 패턴이 다양해지면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크 패턴은 왜 생기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업들의 지나친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거래의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겠죠? 전통적 광고 방법을 넘어 소비자의 충동적 구매를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다크 패턴을 흔하게 만나게 된 상황에 이른 겁니다.

[문항 1] <보기>는 면담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10점)

<보기>

- ① 화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한 답변의 적절성을 상대방에게 확인한다.
- ②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다크, 있을까요(?)
- ② 딱, 보입니다(.)

풀이

- ① 학생의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은 다크 패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진술한 뒤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한 답변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네 번째 발화 중 첫 번째 문장에서 전문가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학생에게 다크 패턴 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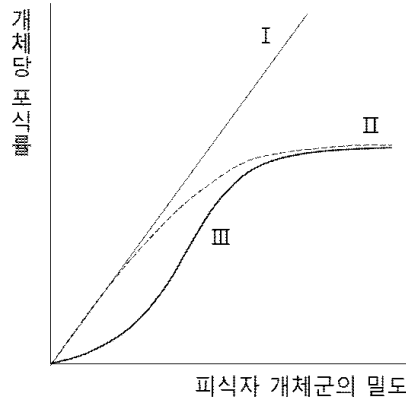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다크, 있을까요(?)	5점
②	딱, 보입니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태계에서 포식자란 잡아먹는 생물을, 피식자란 먹히는 생물을 의미한다. 이 둘의 관계를,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와 개체당 포식률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 ‘기능 반응 모형’이 등장했다.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피식자의 수이고, 개체당 포식률은 단위 시간당 한 포식자에게 소비된 피식자의 수이다. 두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유형화되며 각각 유형 I, II, III 기능 반응이라 부른다.



<그림>

이 모형에서는 ‘총시간’과 ‘포식 효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총시간은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탐색 시간’과 ‘처리 시간’의 합이다. 탐색 시간은 피식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처리 시간은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 잡아먹고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포식 효율은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로 나눈 값으로, 유형에 따라 포식 효율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처럼, 여과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정량의 물에서 피식자를 추출해 섭취하는 포식자에게는 유형 I 기능 반응이 나타난다. 이 기능 반응에서는, 포식자가 자신이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서 잡아먹지 않으므로 탐색 시간만 있으며, 피식자를 통해 포만감을 느낄 수도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개체당 포식률이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로 표현된다.

하지만 실제로 포식자는 포만감을 느껴 섭식을 중단하므로 생물 대부분은 유형 II 기능 반응을 따른다. 즉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은 초기에는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이 감소한다. 이는 포획되는 피식자 수가 증가하면서 탐색 시간은 0에 가까워지고 처리 시간에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유형 III 기능 반응에서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이 초기에는 낮고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 원인으로는 피식자에게 은신처가 있는 지역인 경우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는 은신처가 피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밀도가 높을 때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포식자가 선호해 오던 피식자의 수가 줄어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가 풍부한 다른 피식자로 주의를 돌리는 현상인 ‘전환’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지금까지 먹이로 삼지 않았던 피식자를 우연히 먹어 본 뒤에는 해당 개체를 피식자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인 포식자의 ‘탐색상(探索像)’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문항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3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10점)

<보기>

- ‘유형 II 기능 반응’과 ‘(①) 기능 반응’은 포식 효율이 변하는 구간이 있는 반면, ‘(②) 기능 반응’은 포식 효율이 일정하다.
- ‘유형 II 기능 반응’과 달리 ‘유형 I 기능 반응’의 총시간에는 (③) 시간이 없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유형 III’ 또는 ‘유형 3’
- ② ‘유형 I’ 또는 ‘유형 1’
- ③ 처리

풀이

- ①, ②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포식 효율은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포식 효율은 제시문의 <그림>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데, 유형 I 기능 반응의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유형 II 기능 반응과 유형 III 기능 반응은 모두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더라도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이 변화하는 때가 있다.
- ③ 총시간은 탐색 시간과 처리 시간의 합이다. 제시문의 세 번째 문단에서 유형 I 기능 반응은 탐색 시간만 있다고 하였으므로, 처리 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유형 III’ 또는 ‘유형 3’	3점
②	‘유형 I’ 또는 ‘유형 1’	3점
③	처리	4점

문항 3

※ [문항 2]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3]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의 사례를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0점)

<보기1>

○○ 지역에서 참새는 나무 아래쪽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곤충을 주요 먹이로 삼는다. 여기서 잡히는 곤충은 참새에게 수익성이 높다. 올빼미는 참새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나뭇가지에 앉아 사냥감을 기다리다가 목표물을 향해 아래로 덤벼드는 방식으로 사냥한다. 올빼미는 참새나 들쥐를 먹이로 삼는데 들쥐를 더 선호한다. 들쥐 개체군의 밀도는 4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들쥐의 밀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참새가 올빼미에게 먹힐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들쥐 개체군의 밀도가 일정 수준을 밀도는 시기에 참새는 먹이를 획득했던 주된 장소를 단념하고, 엄호물을 제공하는 나무의 위쪽에서 생활하며 수익성이 낮은 곤충들을 잡는다.

<보기2>

- 들쥐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는 기간에 참새가 올빼미에게 먹힐 위험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유형 III 기능 반응 모형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참새와 올빼미의 관계를 기능 반응 모형으로 설명한다면, 나무가 참새를 보호하는 엄호물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체당 포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 (②)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

- ①은 제시문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서 쓸 것.
- ②는 어간에 어미 ‘-ㄴ/을’이 결합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 ①, ② 모두 3자 이내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전환
② ‘늦어질, 늦춰질, 느려질, 지연될’ 등

풀이

- ① 포식자인 올빼미가 선호해 오던 피식자인 들쥐가 줄어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가 풍부한 다른 피식자인 참새로 주의를 돌리는 현상과 관련되므로, 제시문의 다섯 번째 문단에 소개된 전환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제시문의 다섯 번째 문단에 따르면, 유형 III 기능 반응에서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이 초기에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은신처가 있는 지역인 경우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는 은신처가 피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밀도가 높을 때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엄호물이 역할을 잘 해낼수록 개체당 포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전환	3점
②	‘늦어질, 늦춰질, 느려질, 지연될’ 등	7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격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상황은 ‘모든’ 상황을 뜻하지 않고, ‘일관된’ 행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성격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관찰되며, 여러 사람의 보편적 행동과는 다른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에 대한 법칙을 연구한다.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성격 검사이다. 성격 검사는 흔히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 보고식 검사란 잘 선별된 문항에 피검자 스스로가 응답하는 검사 방식이다. 응답 내용은 수치화되어 피검자의 성격에 대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기 보고식 검사는 믿을 만한 검사 도구와 피검자의 참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이나 비용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피검자가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적절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해 피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피검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보고식 검사와 달리 타인 평정 검사는 피검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응답함으로써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기 보고식 검사가 어려운 미취학 아동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보호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응답자가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를 떠올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피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응답자가 보호자처럼 가까운 사람인 경우 피검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성격의 어떤 측면은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투사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투사 검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각하는 투사 현상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경쟁자를 질투하면서 그 경쟁자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 경우가 투사의 예이다. 피검자에게 어떤 자극을 제시하고 그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피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때 볼펜을 가리키며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라고 묻기보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가리키며 묻는 것이 효과적인데, 모호한 자극에 피검자의 마음속이 투사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즉 투사 검사는 투사가 일어나기 쉽도록 모호한 자극들을 제시하고 피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문항 4] <보기2>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1>에 대해 실시한 탐구활동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1>

자기 이해에 활용되는 개념적 틀인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은 가로축과 세로축에 의해 구분되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로축은 ‘내가 아는 나’와 ‘내가 모르는 나’로 나뉘고, 세로축은 ‘남이 아는 나’와 ‘남이 모르는 나’로 나뉜다. ‘조하리의 창’의 4개 영역 중, ‘열린 창’은 나와 남이 모두 아는 나의 모습으로, 공개된 자기의 측면에 해당한다. ㉠‘숨겨진 창’은 나는 알고 있으나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적 영역이다. ㉡‘보이지 않는 창’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타인에게는 비교적 잘 관찰되는 자기의 측면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창’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아직 인식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킨다.

<보기2>

- 성격 검사의 유형 중 (①)는 <보기1>의 ㉠에 대한 자료 수집에는 부적합하지만, <보기1>의 ㉡에 대한 자료 수집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 <보기1>의 ㉢에 대한 자료 수집에는 성격 검사의 유형 중 (②)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타인 평정 검사
- ② 투사 검사

풀이

- ① 타인 평정 검사는 피검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창’에 대한 자료 수집에는 부적합하다. 대신 타인 평정 검사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비교적 잘 관찰되는 ‘보이지 않는 창’에 대한 자료 수집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 ② ‘미지의 창’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아직 인식되지 않은 자신의 성격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신 또는 타인이 인식하여 보고 또는 평정하는 다른 성격 검사 방식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의 네 번째 문단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적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투사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미지의 창’에 대한 자료 수집에는 투사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타인 평정 검사	5점
②	투사 검사	5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距離感).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나]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여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양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앞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다]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은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끓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림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타내져서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빠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다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어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마침내 노래한다.

- 김창흠, 「낙치설」

*팔풍: ‘팔음’을 뜻함. ‘팔음’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눈, 아악(雅樂)에서 쓰는 여덟 가지 악기. 또는 그 각각의 소리.

*존양: 본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를.

[문항 5] <보기>는 제시문 (가)~(다)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10점)

<보기>

(가)~(다)에는 모두 나이가 들어 가는 과정을 단순한 쇠락이 아닌, 정신적 성숙에 이르는 긍정적 계기로 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가)는 노년을 자연의 섭리 속에서 가뻔함을 느끼는 과정으로, (나)는 불필요한 것을 벗어 던지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다)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정신적 경지로 나아가는 기회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노화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 준다. 세 작품은 이러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가)의 ‘(①)’에서는 색채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로 공간이 환기하는 평온함을 형상화하고, (나)의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 어지럽게 흔들어’에서는 역동성을 환기하는 시구를 통해 젊은 날의 혼돈과 방황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②)’에서는 글쓴이가 노년에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미혹(迷惑)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나 글쓴이가 마주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정신적 경지를 감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다 생생하게 감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① 첫 어절: _____ ,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겨우, 세계(.)
② 그저, 바랐다(.)

풀이

- ①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에서 색채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로 공간이 환기하는 평온함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에서 글쓴이가 노년에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미혹(迷惑)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겨우, 세계(.)	4점
②	그저, 바랐다(.)	6점

문항 6

※ [문항 5]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6] <보기>는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시행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시상 전개란 시에 담긴 생각이나 감정이 펼쳐지는 양상으로, 시의 주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 속의 시간적 흐름이나 화자의 상황 및 태도 변화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하면 시의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박재삼의 「겨울나무를 보며」도 시상 전개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주제 형상화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먼저 1연에서 화자는 온통 산발을 한 듯 어지럽게 흔들리며 자라난 나무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이후 ‘이제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는’이라는 시구가 ‘(①)’와/과 시간적 대비를 이루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그리고 서로 관련 있는 상태와 행위를 나타내는 시행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와 ‘(②)’이/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화자가 겨울나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때 ‘(②)’은/는 화자가 혼돈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난 후 홀가분한 상태로 나아감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 ①: _____
- ②: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스물 안팎 때는
- ②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풀이

- ① ‘스물 안팎 때는’이라는 시구는 ‘이제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는’이라는 시구와 시간적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②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와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는 ‘벗은 상태’와 ‘벗다’라는 행위를 바탕으로 연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겨울나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스물 안팎 때는	5점
②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5점

2026학년도 자연계 F형

문항 1

※ 다음은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가 보도되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14개 시도에서 31명의 급식 종사자가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리실뿐 아니라 급식실의 환기 장치도 추가해 주십시오.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올해 조리실 환기 장치 추가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조리실의 경우 개방형 조리실인 점을 고려할 때 급식실의 환기 장치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급식실 환기에 필요한 급식 도우미의 추가 선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급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 도우미를 활용하여 급식 시간 전에 급식실을 충분히 환기하면 급식실의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급식실 환기에 신경 쓰는 급식 종사자의 일손도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셋째, 초록 급식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암 물질인 조리흡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식 식단 조정과 급식 조리 방식 변경을 통해 조리흡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환경을 고려한 초록 급식을 월 1회 시행하고 있는데, 채소를 삶거나 데치는 조리법 위주의 초록 급식 식단을 늘리면 조리흡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초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80% 이상의 학생이 초록 급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횟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했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건의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을 수용할 경우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학교 구성원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수용해 주신다면 급식 종사자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는 학생이 건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건의 사항의 수용이 필요한 근거로 조리실의 구조를 언급한다.
- ② 학생회에서 직접 실시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건의 내용의 근거로 활용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우리, 생각합니다(.)
- ② 학생회에서, 바랍니다(.)

해설

- ① 제시문의 “우리 학교 조리실의 경우 개방형 조리실인 점을 고려할 때 급식실의 환기 장치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에서 건의 사항의 수용이 필요한 근거로 조리실의 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제시문의 “학생회에서 실시한 초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80% 이상의 학생이 초록 급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횡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했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건의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학생회에서 직접 실시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건의 내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우리, 생각합니다(.)	5점
②	학생회에서, 바랍니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든다.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이나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 공간과 달리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너무 조밀한 구역으로 나뉘어서는 안 되며 자동차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이나 교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둥 간의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한다면 보의 최대 처짐량은 16배나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의 변형률과 원래 치수와의 비인 ‘변형률/원래 치수’를 변형률이라 한다.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이때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응력이라고 한다.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며,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의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 응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인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에 비해 $\frac{1}{9} \sim \frac{1}{13}$ 정도이며,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콘크리트로 보를 만들 때에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더 큰 힘을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 것이다. 철근은 인장 응력이 크며, 콘크리트와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 보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가 작아지면 보에 발생하는 내력의 크기는 (①).
- 보의 길이가 길어지고 보의 단면적이 작아지면 보가 견딜 수 있는 외력의 크기는 (②).
-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모두 커지는데, 이때 그 커짐의 정도가 더 큰 것은 (③)이다.

<조건>

- ①, ②는 모두 ‘-다’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①~③은 모두 4자 이내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작아진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준다’ 등
- ② ‘작아진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준다’ 등
- ③ 압축 응력

해설

- ① 제시문에 따르면,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의 하중의 크기가 작아지면 내력 역시 작아짐을 알 수 있다.
- ② 제시문에 따르면, 보의 길이가 길어지고 보의 단면적이 작아지면 보가 견딜 수 있는 외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 ③ 제시문에 따르면, 콘크리트의 경우,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에 비해 매우 작고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모두 커지는데, 이때 그 커짐의 정도가 압축 응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작아진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준다’ 등	3점
②	‘작아진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준다’ 등	4점
③	압축 응력	3점

문항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들이 많았다. 더그데일은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 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롬브로소는 두개골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뒤르캤과 달리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은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조,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혁신이 나타난다.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되 제도적 수단은 수용하는 경우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화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탈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일탈에 관한 이러한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회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 3]

<보기2>는 제시문에 나타난 ㉠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기1>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사례 1]

소설 「종이달」은 일본 버블 경제 막바지 시기를 배경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에 대한 욕망과 이로 인한 일탈을 묘사한다. 권태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산층 전업주부 리카는 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부유층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금세 실적이 좋은 직원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는 인색한 부자 고객의 손자인 고학생 고타를 위해 위조 증서를 만들어 고객의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고타를 돕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맛본 리카의 횡령액은 점점 커지게 된다. 결국 리카는 1억 엔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한다.

[사례 2]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평등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4대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초 영국의 서프러제트(suffragette) 운동은 여성 참정권을 위한 대표적인 투쟁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서프러제트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한 영화에서 순응적인 삶을 살던 주인공 모드는 우연한 계기로 서프러제트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모드와 그 동료들은 당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기득권층의 무관심과 반대에 맞서 불법 시위, 방화 등 급진적 방법까지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둬들인 투옥, 실직, 가정 파탄 등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싸웠다. 그 결과 1928년 영국은 마침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보기2>

<보기1>에서 ‘리카’와 ‘모드’의 행동 양상은 제시문에 언급된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방식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객의 돈을 횡령한 ‘리카’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방식 중 (①)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서프러제트 운동에 참여한 ‘모드’는 (②)에 가장 가깝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혁신
② 반역

해설

- ① 제시문의 네 번째 문단에 제시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혁신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리카’는 부에 대한 욕망이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교육, 근로 등 부를 축적하는 데 사회적으로 허용된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고, 횡령이라는 범죄를 통하여 부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머튼이 제시한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방식 중 혁신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② 제시문의 네 번째 문단에 제시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모드’는 당대 사회 질서 유지라는 문화적 목표와 성별에 따른 권리에서의 차별을 법제화한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였다. 또한 평등한 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여성 참정권 부여라는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추구하였으므로, 머튼이 제시한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방식 중 반역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혁신	5점
②	반역	5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석은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주기적인 운동이고, 조류는 조석으로 인한 해수의 수평 방향의 흐름이다. 조석을 설명할 때 해수면의 수위를 조위, 조위가 가장 낮은 때를 저조, 가장 높은 때를 고조, 연속된 저조와 고조 사이의 높이차를 조차, 연속되는 고조와 고조 또는 저조와 저조 사이의 시간 간격을 조석 주기라 한다. 조석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하며, 이 힘은 지구상의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달과 태양은 지구의 기조력에 영향을 주지만 달이 지구와 더 가까워서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것보다 약 두 배 강하다.

달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구에는 달이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지구의 한 지점에서의 만유인력은 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또한 달과 지구는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므로, 지구의 모든 지점에는 일정한 크기의 원심력이 발생하며, 이 힘은 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구 중심에서는 이 두 종류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기조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달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는 이 균형이 달라져, 기조력의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함으로써 해수면의 높이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이용해 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 조력 발전은 만의 입구에 댐을 설치해 한 개의 저수지를 만든 후 저수지 안쪽 물인 내해와 밖의 물인 외해의 수위 차로 만든 낙차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며, 낙차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조차의 제공에 비례한다. 해수는 댐의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데,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된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서 해수의 유속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한다.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서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저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대기하다가, 고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저조를 기다리는 작동 주기를 가진다. 낙조식 방식은 고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고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저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고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4자 이내로 쓰시오.

<보기>

- 지구 중심에서 지구와 달의 관계에 의한 (①)의 크기와 만유인력의 크기는 같다.
- 내해와 외해의 수위 차가 가장 큰 시점은 창조식 발전에서는 (②) 때 수문을 개방하기 직전이고, 낙조식 발전에서는 (③) 때 수문을 개방하기 직전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원심력
- ② 고조 (수위)
- ③ 저조 (수위)

해설

- ① 지구 중심에서는 이 두 종류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기조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힘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다.
- ② 창조식 발전에서는 고조 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고조 때 수문 개방 직전에 수위 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 ③ 낙조식 발전에서는 저조 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조 때 수문 개방 직전에 수위 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원심력	3점
②	고조 (수위)	4점
③	저조 (수위)	3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의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시행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이용악의 「오랑캐꽃」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가 오랑캐꽃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가진 이 작품은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과거 고려 군 사에게 쫓겨난 오랑캐의 역사에 관한 화자의 언급을 통해 시상이 전개된다. 그중 ‘(①)’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힘없이 쫓겨나야 했던 오랑캐의 비참한 모습이 형상화된다. 시의 소재인 오랑캐꽃은 오랑캐와는 상관이 없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했던 오랑캐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이러한 오랑캐꽃을 바라보며 화자는 당대 우리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연상하게 된다. 화자는 오랑캐꽃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오랑캐꽃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랑캐꽃을 보호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의 사용으로 강조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오랑캐는, 굴러갔단다
② 두, 줄게

해설

- ① 시의 구성은 오랑캐꽃의 이름의 유래, 과거 고려군에게 쫓겨간 오랑캐의 모습을 1연, 세월과 역사의 흐름을 2연, 오랑캐꽃의 억울함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3연에 배치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힘없이 쫓겨나야 했던 오랑캐의 비참한 모습이 형상화된 부분은 1연의 마지막 행 “오

랑개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의 요구에 맞춰 “오랑개는”과 “굴러갔단다”를 쓰면 된다.

- ② 오랑개꽃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동작으로 제시된 것은 3연의 4행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이다. 문제의 요구에 따라 “두”, “줄게”를 나란히 쓰면 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오랑개는, 굴러갔단다	5점
②	두, 줄게	5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양반 일등: 이놈 말뚝아.

말뚝이 1: 이호 허허— 얼수여어. (재물대감이 면상을 때린다.)

둘째양반: 네가 작년 오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허냐?

말뚝이 1: 어허, 영락없소.

둘째양반: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청노새 덩미를 집어내어, 아래위 솔질을 찰찰하여 말안장 달안장 층층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해서 박천 도가(都家) 꿀물에 촉촉이 추겨서 은설합에 가득히 넣고, 은목감이 자죽설 대 김해간죽 부산죽 전대에 두르르 말아, 말 궁둥이에 딱 부치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남문 밖 셋째 술막으로 어이 속히 대령하랴드니, 네가 그지간 어디를 갔드냐?

말뚝이 1: 흐흐흐, 허허허, 시안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령님의 영을 거역치 못하여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척 노 시안님*의 덩미를 쿡 집어내어—.

둘째양반: (말뚝이를 치며) 예끼, 이놈. 수상수하 남녀노소 아동주졸 많이 모였는데, 그 무슨 소리냐?

말뚝이 1: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안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만양반: (뒤를 돌아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먼 귀를 먹어서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들었네그려.

둘째양반: 여보게, 이 사람아. 해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다. 가까운 혀끝을 먹게나.

양반 일등: (합창) 자—, 노새라네. (굿거리에 맞춰 말뚝이와 대무한다*.)

양반 일등: 두우. (춤을 그친다.)

만양반: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 보세.

양반 일등: 이놈, 말뚝아—.

말뚝이 2: 으흐흐흐—, 얼수여. (도령의 면상을 친다.)

만양반: 이려고저려고, 저만치 물러나 양반의 말씀을 들어 보라. 그래, 네가 그 좋은 말을 어찌하였단 말이냐?

말뚝이 2: 예, 청노새 덩미를 잡아내어, 아래위에 솔질을 찰찰하여 말안장 달안장 칭칭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하여 박천 도가 똥물에 촉촉이 추기어—.

만양반: (말뚝이 2의 등을 툭 치며) 예끼, 이놈. 그 좋은 담배를 어찌고 어찌해?

말뚝이 2: 어찌 듣는 말씀이요.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랍니다.

- 작자 미상, 「강령 탈춤」

*노시안님: 노샌님. 노새에 닮은 표현.

*대무한다: 마주 서서 춤을 춘다.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탈춤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고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 진행되는 가면극이다. 탈춤에서는 당대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탈의 은폐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특히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언어유희는 양반을 희화화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강령 탈춤」에서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희롱하는 두 말뚝이의 대사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말뚝이 1’이 ‘노새’를 ‘노시안님’이라고 한 것은 음성적 유사성에 기대 의도적으로 언어를 변형하여 양반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말뚝이 2’가 양반의 추궁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①)’을/를 ‘(②)’(이)라고 바꾸어 말한 것은 끝음절이 동일한 단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한편 양반들 사이의 대화에도 언어유희가 사용되고 있는데, ‘(③)’에서는 원근의 대비가 활용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의 어리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조건>

- ①, ②는 제시문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쓸 것.
- ③은 제시문에서 연속된 두 문장을 찾아, 첫 문장의 첫 어절과 둘째 문장의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첫 문장의 첫 어절: _____, 둘째 문장의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①: 꿀물, ②: 똥물> 또는 <①: 똥물, ②: 꿀물>

③ 해필이면, 먹게나(.)

해설

①과 ②는 각각 둘째 양반의 말을 말뚝이2가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유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꿀물과 똥물은 “끝음절이 동일한 단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보여준다.

① 제시문에서는 ‘말뚝이 2’가 양반의 추궁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양반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슬쩍 “꿀물”을 “똥물”로 바꿔서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은 원래는 둘째양반이 말뚝이에게 어디 갔느냐고 추궁하는 말속에 들어 있다.

둘째양반: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청노새 털미를 집어내어, 아래위 솔질을 찰찰하여 말안장 달안장 층층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해서 박천 도가(都家) 꿀물에 축축이 추겨서 은설합에 가득히 넣고,

② 둘째양반의 말을 말뚝이2는 다음과 같이 비틀었다.

말뚝이 2: 예, 청노새 털미를 잡아내어, 아래위에 솔질을 찰찰하여 말안장 달안장 칭칭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하여 박천 도가 똥물에 축축이 추기어—

③ 원근의 대비가 활용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의 어리숙함을 풍자하는 대목은 먼 귀가 먹었다는 말양반의 말을 받아치는 둘째양반의 말에서 드러난다.

둘째양반: 여보게, 이 사람아. 해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다. 가까운 혀끝을 먹게나.

■ 채점 기준

답안			배점
① 꿀물	또는	① 똥물	3점
② 똥물		② 꿀물	3점
③ 해필이면, 먹게나(.)			4점

2025학년도 자연계

문항 1

※ 다음은 스마트 팜을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스마트 팜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 팜은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농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팜에서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농장의 온도, 이산화 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한다.

스마트 팜이라고 하면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하기 쉬운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과 같은 시설 원예 농가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스마트 팜은 노지 작물이나 축사에도 활용된다. 스마트 팜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노지 작물 농가는 물 공급과 병충해 예방 등 작업을 관리하고, 스마트 축사 농가는 물과 사료를 원격 또는 자동으로 조절한다. 정부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스마트 시설 원예 농가 700여 가구, 스마트 노지 작물 농가 400여 가구, 스마트 축사 농가 500여 가구가 참여하는 등 스마트 팜은 최근 연평균 15.5% 정도의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 중이다.

정부의 스마트 팜 지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팜의 도입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이다. 기존 방식의 농업과 축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인데, 스마트 팜에서는 적은 노동력으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처럼 환경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여러 장점이 있는 스마트 팜이지만 아직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문제도 남아 있다. 실제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는 많은 농민들은 스마트 팜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며,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잦은 고장 문제를 이야기한 농민도 많았다. 따라서 미래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효과가 있는 스마트 팜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일과 장비 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 1]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 팜의 현황을 제시한다.
- ② 스마트 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마트 팜 운영 농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정부, 중이다
- ② 실제로, 많았다

해설: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서 제시문을 작성한 사람이 계획했던 내용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①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 팜의 현황을 제시”한 부분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 중 “정부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스마트 시설 원예 농가 700여 가구, 스마트 노지 작물 농가 400여 가구, 스마트 축사 농가 500여 가구가 참여하는 등 스마트 팜은 최근 연평균 15.5% 정도의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 중이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 팜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제시문의 네 번째 문단 중 “실제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는 많은 농민들은 스마트 팜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며,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잦은 고장 문제를 이야기한 농민도 많았다.”에서는 스마트 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스마트 팜 운영 농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음파이다. 이를 이용한 초음파 진단기는 신체에 탐촉자*를 대고 초음파를 발생시킨 뒤, 인체 조직을 통과하는 초음파 빔 중에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탐촉자가 수신하여 영상으로 변환해 화면에 나타내는 기기이다.

소리의 파동인 초음파는 전파되기 위해 매개체, 즉 매질이 필요하다. 매질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차이가 나며, 동일한 매질 내에서는 동일한 전파 속도를 가진다. [자료1]은 매질별 초음파의 전파 속도와 음향 저항을 나타낸 표이다. 인체는 대략 6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균적인 전파 속도가 1,540m/s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뼈조직에서의 전파 속도는 4,080m/s로 가장 빠르고, 대부분이 공기로 채워진 폐에서의 전파 속도는 가장 느리다. 전파 속도는 통과하는 매질의 체적 탄성률*에 비례하고 매질의 밀도에 반비례한다.

탐촉자에서 송신한 초음파 빔은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조직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거나 조직 내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데, 초음파 진단기는 이러한 반사파나 산란파를 이용한다. 음향 저항이 서로 다른 두 조직의 경계면에 초음파가 입사*되면,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음향 저항은 음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질의 밀도(g/cm^3)와 매질 내 전파 속도(m/s)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때, 두 매질 사이에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증가한다. 초음파는 같은 매질 내에서는 같은 전파 속도를 가지므로, 음향 저항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두 매질 간의 밀도 차이이다. 근육, 힘줄, 인대 등과 같은 연부 조직의 평균 음향 저항은 $1.70\text{g}/\text{cm}^2\cdot\text{s}$ 로 지방보다 공기와의 음향 저항의 차이가 더 크므로,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보다 공기와 근육의 경계면에서 반사파의 세기가 더 크다. ㉠초음파 검사 시에 탐촉자와 피부 표면 사이에 점성이 높은 액체형 젤(gel)을 바르는 것도 탐촉자와 피부 사이의 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파의 세기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음파의 반사는 입사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입사각은 입사되는 초음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표면이 평평한 두 매질의 경계면에 초음파 빔이 입사할 경우,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초음파 빔이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탐촉자로 돌아오는 반사파가 많아져서 초음파 영상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입사각이 커질수록, 즉 입사파와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가 작아질수록 빔은 탐촉자의 반대 방향으로 반사되어 탐촉자로 돌아오는 빔이 적어져서 영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자료2]는 초음파가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의 반사 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반사 계수란 입사파 대비 반사파의 비율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입사파 대부분이 반사됨을 의미한다.

초음파 검사 시 주의 사항이 있다. 위장, 간, 담낭 등의 장기를 살펴볼 수 있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물을 포함한 음식물의 섭취가 소화액과 장내 가스를 발생시켜 반사파가 증가한다. 즉 위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과 장내 가스는 위장의 깊숙한 부위 혹은 팽창된 위장에 가려지는 췌장이나 간 등의 장기에 초음파가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전에는 8~12시간 이상 물을 마시지 말고 금식해야 한다. 또한 껌을 씹거나 흡연하는 과정에서 삼킨 많은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껌 씹기와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매질	초음파의 전파 속도 (m/s)	음향 저항 (g/cm ² ·s)
공기	331	0.0004
지방	1,450	1.38
물	1,540	1.54
혈액	1,570	1.61
근육	1,585	1.70
뼈	4,080	7.80

[자료1]

경계면	반사 계수
지방-근육	0.10
혈액-근육	0.03
근육-뼈	0.64
신장-간	0.01
연부 조직-물	0.05
연부 조직-공기	0.99

[자료2]

*탐촉자: 초음파를 발생시켜 송신하고 되돌아오는 음파를 수신하는 장비.

*체적 탄성률: 물체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압축력이 가해졌을 때, 압축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입사: 소리나 빛의 파동이 매질 속을 지나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이르는 일.

*법선: 어떤 면에 수직으로 세운 가상의 선.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실시한 탐구 활동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

- ‘근육과 뼈의 경계면’과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 중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더 큰 것은 ‘(①)의 경계면’이다.
 - 매질의 특성만 고려하면, ‘혈관 속’과 ‘폐 속’ 중 초음파의 전파 속도는 ‘(②) 속’에서 더 빠르다.
 - 초음파가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육과 뼈의 경계면’과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 중 ‘(③)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정도가 더 크다.
- ※ <보기>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문제 3]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과 ㉡의 이유를 추론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은 탐촉자에서 나온 초음파가 피부에 닿기 전에 통과하게 되는 매질과 피부 사이의 (①)을/를 감소시켜 초음파가 신체 내로 쉽게 투과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은 껌을 씹거나 흡연하는 과정에서 위장으로 들어간 공기로 인해, 초음파 검사 시 (②)이/가 증가하여 정밀한 진단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문제 2]

정답:

- ① ‘근육과 뼈(의 경계면)’ 또는 ‘뼈와 근육(의 경계면)’
- ② 혈관 (속)
- ③ ‘근육과 뼈(의 경계면)’ 또는 ‘뼈와 근육(의 경계면)’

해설:

- ① 제시문의 3문단에 의하면 초음파가 음향 저항이 다른 두 조직의 경계면에 입사될 때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는 두 매질 사이의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근육과 뼈의 경계면’과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 중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더 큰 것은 ‘근육과 뼈의 경계면’이다.
- ② 제시문의 [자료1]에 의하면 혈액에서 평균적인 초음파의 전파 속도는 1,570m/s이고, 공기에서 평균적인 초음파의 전파 속도는 331m/s이다. 따라서 ‘혈관 속’에서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대부분 공기로 채워진 ‘폐 속’에서보다 더 빠르다.
- ③ 제시문의 4문단에 의하면 반사 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입사파의 대부분이 반사된다. 제시문의 [자료 2]에서 ‘근육과 뼈의 경계면’에서의 반사 계수는 0.64이고,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에서의 반사 계수는 0.10 이므로 ‘근육과 뼈의 경계면’에서 초음파가 반사되는 정도가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보다 더 크다.

[문제 3]

정답:

- ① 음향 저항(의) 차이
- ② 반사파

해설:

- ① 초음파 검사 시에 탐촉자와 피부 표면 사이에 점성이 높은 액체형 젤(gel)을 바르는 것은 탐촉자에서 나온 초음파가 피부에 닿기 전에 통과하게 되는 매질과 피부 사이의 음향 저항의 차이를 감소시켜 초음파가 신체 내로 쉽게 투과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② 초음파 검사 전에 껌 씹기와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껌을 씹거나 흡연하는 과정에서 위장으로 들어간 공기로 인해, 초음파 검사 시 반사파가 증가하여 정밀한 진단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산행 중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며 ‘아름답다’고 느낀다. 드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그 광경이 ‘장엄하다’거나 ‘숭고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칸트는 이러한 미(美)와 숭고(崇高)의 판단이 우리에게 즐거움, 즉 쾌를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둘은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 모두 객관과 관계된 것이라면, 미와 숭고는 오직 주체가 느낀 감정, 즉 주관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즉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려는 판단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첫째,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숭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된다. 예를 들어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을 바라볼 때에는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숭고를 경험한다. 이처럼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 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칸트에 따르면 숭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닌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둘째, 미와 숭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다. 칸트는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면, 숭고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 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 결국 숭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즉 하나로 파악해 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마음의 운동, 즉 감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셋째, 칸트는 합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한다. 합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반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합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숭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어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된다.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다.

[문제 4]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의 ㉠~㉣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2>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1>

칸트는 ‘크다는 것’과 ‘크기’를 구별한다. ㉠‘크기’는 다른 척도 없이도 대상 그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규정되지만 ‘크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저 사물의 크기가 1m이다.’라는 판단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 없이 규정되나,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은 그 사물보다 크기가 작은 사물들을 전제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는 비교 대상을 요구하는 상대적인 판단으로, 그 대상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도 ‘저 사물은 크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기는 판단이다. 칸트는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에서 ‘크다는 것’을 다시 ㉡‘상대적으로 큰 것’과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구분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전제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큰 것’에 대한 판단 주체는 그 비교 대상을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성을 체험한다.

〈보기2〉

칸트는 주체의 어떤 대상에 대한 숭고의 체험은 감각적 형식으로 표상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반성적 판단을 통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고려하면 칸트의 입장에서 ㉠에 대한 판단은 반성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는 ㉠이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숭고의 체험을 할 수 (㉠). 다음으로 ㉡은 주관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으로 여겨지는 반성적 판단이다. 하지만 ㉢은 감각적 형식으로 표상할 수 (㉡)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것이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주체는 ㉢으로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 숭고의 체험을 할 수 (㉢). 마지막으로 ㉣은 주체의 반성적 판단에 해당하고, ㉣의 판단 주체는 비교 대상을 주체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때 ㉣의 판단에는 대상을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가 (㉣) 때문에 주체는 숭고를 경험하게 된다.

〈조건〉

- ㉠~㉣ 모두 문맥에 맞게 ‘있다’ 또는 ‘없다’의 적절한 활용형으로 작성할 것.
- ㉠~㉣ 모두 2자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없다(없음, 없어 등 ‘없다’의 평서형 종결어미 결합형)
- ② 있는
- ③ 없다(없음, 없어 등 ‘없다’의 평서형 종결어미 결합형)
- ④ 없기

해설: 이 문제는 제시문의 미와 송고에 대한 칸트의 생각과 <보기1>의 내용을 종합하여 칸트가 보여준 송고의 이해가 갖는 의미를 몇 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2>의 요청사항을 각각 명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칸트에 의하면 송고의 체험은 감각적 형식으로 표상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반성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크기는 감각과 대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이는 송고의 체험 대상이 아니다.
3. 상대적으로 큰 것 역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는 감각적 판단의 대상이고 따라서 송고 체험을 할 수 없다.
4. 칸트가 말하는 송고의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무형식적 대상”이나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기1>에서는 이를 그 비교 대상을 자신의 밖에서 찾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재현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큰 것’은 곧 송고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크기)가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송고의 체험을 할 수 (①없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으로 여겨지는 반성적 판단이다. 하지만 ㉡은 감각적 형식으로 표상할 수 (②있는)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것이므로 송고의 체험을 할 수 (③없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큰 것)은 주체의 반성적 판단에 해당하고, ㉢의 판단 주체는 비교 대상을 주체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제시문에서 말하는 대상을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가 (④없다)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조건에 맞춰서 각각 ‘없다, 있는, 없다, 없기’를 기술하면 된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장(沙場)은 물새가 없이 너무 너르고 그 건너 포플러의 행렬은 이 개포*의 뚝대들보다 더 위엄이 있다. 오래 머물지 못하는 뚝대들이 쫓겨 달아나듯이 하구(河口)를 미끄러져 도망해 버린다. 나무 없는 건넌산들은 키가 뚝대보다 낮다. 피부 빛은 사공들의 잔등보다 붉다. 물속에 들어간 닻이 얼마나 오래 있나 보자고 산들은 물 위를 바라보고들 있는 듯하다.

개포에는 낫닭이 온다. 기슭 활는 물결 소리가 닭의 소리보다 낮게 들린다. 저 아래 철교 아래 사는 모터보트가 돈 많은 집 서방님같이 은회색 양복을 잡숫고* 호기 뻗친 노라리* 걸음으로 내려오곤 한다. 빈 매생이*가 발길에 차이고 못나게 출렁거리며 온다.

커다란 금 휘장의 모자를 쓴 운전수들이 빈손 들고 내려서는 동독을 넘어서 무엇을 찾는 듯이 구차한 거리로 들어간다. 구멍 나간 고의를 입은 사공들을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예의이다. 모두 머리를 모으고 몸을 비비대고 들어선 배들 앞에는 언제나 운송점의 빨간 트럭 한 대가 놓여 있다. 때때로 풍풍풍풍……거리는 것은 아마 시골 손들에게 서울의 연설을 하는지 모른다.

여의도에 비행기가 뜨는 날 먼 시골 고장의 배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 뚝대 꼭두마리의 팔랑개비를 바라보던 버릇으로 뱃사람들은 비행기를 쳐다본다. 그리고 뚝대의 흰 깃발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에 영등포를 떠나오는 기차가 한강 철교를 건넌다.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서 내는 신년 괘력(掛曆)*의 그림이 정말이 되는 때다.

“마포는 참 좋은 곳이야!” 뱃사람의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감탄한다.

흰 수염 난 늙은이가 매생이에서 낚대를 드리우지 않는 날을 누가 보았나? 요단강의 영지(靈智)*가 물 위에 차 있을 듯한 곳이다. 강상(江上)에 흐느이는* 나룻배를 보면 「비파행」*의 애끓는 노래가 들리지 않나 할 곳이다.

뗏목이 먼저 강을 내려와서 강을 올라오는 배를 맞는 일이 많다. 배가 떠난 뒤에도 얼마를 지나서야 뗏목이 풀린다. 뗏목이 낮익은 배들을 보내고 가는 때에 개포의 작은 계집아이들이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잔등에 올라앉는다. 기름 바른 머리 분칠한 얼굴이 예가 어텐가 하고 묻고 싶어 할 것이 뗏목의 마음인지 모른다.

뱃지붕을 타고 먼산바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산 그 너머 산 그 뒤로 보이는 하이얀 산만 넘으면 고향이 보인다고들 생각한다. 서울 가면 아무 데 산이 보인다고 마을에서 말하고 떠난 그들 서울의 개포에 있는 탓이다.

배들은 낫선 개포에서 본(本)과 성명을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머리에다 커다랗게 붉은 글자로 백천(百川), 해주(海州), 아산(牙山)…… 이렇게 빼졌한 본을 달고 금파환(金波丸), 대양환(大洋丸), 순풍환(順風丸), 이렇게 아름답고 길상(吉祥)한 이름을 써 붙였다. 그들은 이 개포의 맑은 하늘 아래 빨사납게 서서 흰 구름과 눈빨기*를 하는 전기 공장의 시꺼먼 굴뚝이 미워서 이 강에 정을 못 들이겠다고 말없이 가 버린다.

- 백석, 「마포」

*개포: 마포의 포구.

*잡숫고: 입고.

*노라리: 건달처럼 빈둥거리는 것.

*매생이: 돛이 없는 작은 배.

*괘력: 벽이나 기둥에 걸어 놓고 보는 일력(日曆)이나 달력.

*영지: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흐느이는: 느리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비파행: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지은 칠언 고시.

*눈빨기: ‘눈 흘기기’의 평북 방언.

[문제 5]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교사: 지금까지 백석의 「마포」를 함께 감상해 봤어요.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마포인데, 마포의 풍경과 그에 투영된 글쓴이의 단상이 체계적인 의미 단위를 이루며 전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공간적 배경은 이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생성AI를 활용해 작품 속 배경을 이미지로 한번 구현해 보기로 해요. 생성AI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준비해야 하니까, 먼저 작품 속에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의 모습을 정리해서 말해 볼까요?

민수: ㉠마포 포구의 건너편에는 험벗고 낮은 민둥산들이 있어요.

교사: 그 민둥산들의 색깔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민수: 붉은색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혜은: ㉡마포 포구에 정박한 배들 앞에는 엔진 소리를 내는 빨간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예쁘게 단장한 계집 아이들이 마포 포구에 정박한 배 위로 올라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교사: 음,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곳이 배 위가 맞나요?

혜은: 아, 배 위가 아니라 뗏목 위이네요.

교사: 네, 좋아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의 다른 모습들도 계속 찾아봅시다.

① ㉠에 해당하는 문장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에 해당하는 문장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나무, 낮다
- ② 모두, 있다

해설:

- ① “나무 없는 건넌산들은 키가 돛대보다 낮다. 피부 빛은 사공들의 잔등보다 붉다.”에서 마포 포구의 건너편에는 나무가 없어 험벗고 낮은 민둥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산이 붉은색임을 알 수 있다.
- ② “모두 머리를 모으고 몸을 비비대고 들어선 배들 앞에는 언제나 운송점의 빨간 트럭 한 대가 놓여 있다”에서 ‘마포 포구에 정박한 배들 앞에는 엔진 소리를 내는 빨간 트럭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넌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야경꾼: 밤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연을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시에에는 다양한 갈등의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시적 화자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난다. 갈등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태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갈등의 해소보다는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도 갈등을 겪는 화자의 감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이 시에는 ㉠화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각각이, 대비되는 공간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표현되면서 화자의 자조적인 감정이 표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구체적인 대상을 호명하며 묻는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① ㉠에 해당하는 연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에 해당하는 연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아무래도, 있다
- ② 모래야, 적으냐(……)

해설:

- ① 제시문의 5연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 앓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에서 화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는 공간적 이미지의 시어 ‘절정’과 ‘조금쯤 옆’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자의 자조적인 감정이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시문의 7연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 정말 얼마큼 적으냐……’에서 구체적인 대상 ‘바람, 먼지, 풀’을 호명하며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느끼는 화자의 부끄러운 감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 인문계 A형

문항 1

※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생활 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주변 학생들에게 생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학생의 초고]

지난주부터 우리 학교 근처 ○○ 사거리에서 ○○동 주민들이 생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동이나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생활 체육관과 같은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28.7%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 체육관인 △△ 체육관조차 학교에서 4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시의 인구는 100만여 명으로 시내에 생활 체육관은 8곳이 있다.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의 □□시, ☆☆시에는 각각 7곳, 10곳의 생활 체육관이 있다. 우리 시의 생활 체육관 수가 다른 시에 비해 특별히 적지는 않다. 하지만 ○○동의 경우, 생활 체육관의 이용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개선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시청에 문의해 보니,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서는 ○○동에 새로운 공공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운동의 습관화는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학교는 운동장의 크기도 작고 운동 기구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 근처에 생활 체육관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 외에 수시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마련됨을 뜻한다.

우리 학교에는 생활 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생활 체육관은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시설이다. 각종 스포츠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은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실내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는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관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명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

[문제 1] <보기>는 초고 작성을 위해 작성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서명 운동을 통한 생활 체육관 건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생활 체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 ② 생활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활 체육관이 지역 사회에 주는 효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개선, 있었다

② 각종, 있다

해설:

① 둘째 문단의 문장 ‘개선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시청에 문의해 보니,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서는 ○○동

에 새로운 공공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에서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생활 체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서명 운동의 생활 체육관 건립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쓰일 수 있다.

② 넷째 문단의 문장 ‘각종 스포츠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은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실내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는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에서 생활 체육관이 지역 사회에 주는 효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쓰일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개선, 있었다	5점
②	각종, 있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라캉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 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이다.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간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 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실재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재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므로 라캉은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라캉은 주체가 이러한 쾌락을 만들어 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생톱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톱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열되고 소외된 존재이다. 상상계에서 아이는 (①)에 투영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한다.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형성된 자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한 인간의 인식과 관련한 세 가지 세계의 범주 중, (②)에서 인간은 개인이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수 없는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거울
- ② 상징계

해설

상상계의 아이는 거울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인간이 언어를 통해 욕망하고 언어에 종속되는 것은 상징계에서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거울	5점
②	상징계	5점

문항 3

[문제 3] <보기1>은 제시문을 읽고 조사한 자료이고,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동음이의어 사용 등의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이는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의 언어는 ‘애매 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에 갇히기 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였다.

<보기2>

제임스 조이스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고 한 시도는 라캉의 입장에서 현실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쾌락을 의미하는 (①)에 대한 추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가 애매 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②)을/를 통해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주이상스
- ② 생툼

해설

제시문의 하단에 라캉의 이론을 예술가의 예술 작업에 적용하는 원리가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제임스 조이스의 예술 작업은 주이상스의 추구로, 그의 애매 폭력적 언어는 생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주이상스	5점
②	생툼	5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시장으로 구분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가끔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반면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모 발행은 사모 발행에 비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고,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총액 인수는 중개 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일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 중개 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발행의 경우 중개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는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 회사를 더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문제 4]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른 채권 발행 시장의 거래 방식 중, 채권 발행자의 입장에서 채권 발행 당시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과소 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은 (①)이다.
- 채권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른 채권 중개 회사의 채권 인수 방식 중, 채권 중개 회사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②)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 중개 회사는 (②) 방식으로 채권을 인수할 때에 더 높은 (③)을/를 받는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공모 발행
- ② 총액 인수 (방식)
- ③ (중개) 수수료

해설

- ① 제시문의 둘째 문단에 의하면,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른 채권 발행 시장의 거래 방식은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나뉜다.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 ② 제시문의 셋째 문단에 의하면,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총액 인수 방식이 잔액 인수 방식보다 더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한다.
- ③ ②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총액 인수 방식에서 중개 회사는 더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므로 중개 회사는 총액 인수 방식으로 채권을 인수할 때,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공모 발행	4점
②	총액 인수 (방식)	4점
③	(중개) 수수료	2점

문항 5

[문제 5] 제시문의 ㉠~㉣ 각각에서 관찰되는 음운의 변동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구개음화, 거센소리되기,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예시 답안

정답

- ㉠ 된소리되기
- ㉡ 비음화
- ㉢ 거센소리되기

해설

- ㉠ ‘특정’은 [특쩡]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ㅈ’이 선행 음절의 말음 ‘ㄱ’ 뒤에서 ‘ㅈ’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 ‘받는다’는 [반는다]로 발음되는데, 이때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 ‘지급하더라도’는 [지그파더라도]로 발음되는데, 이때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채점 기준

- ㉠~㉣를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된소리되기	3점
㉡	비음화	3점
㉢	거센소리되기	4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 방송 보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선거 방송 보도가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 운동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 방송 보도가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대중에게 쉽게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 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선거 방송 보도 유형으로는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 개인화 보도가 있다.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 선거, 흑색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비방·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가 있다. 경마식 보도란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능력·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득표율 예측,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통합·갈등 등 흥미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다. 개인화 보도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선거 보도의 유형과 선거 방송 보도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보도 유형	선거 방송 보도 예시
(①)	후보들의 지지율 양상, 선거 토론회 방송에서 표출된 후보자 간의 갈등과 함께 이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의 해석을 보도한다.
(②)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 및 제도보다는 후보자의 사적 영역을 취재하여 이를 더 비중 있게 보도한다.
(③)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한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한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경마식 보도
- ② 개인화 보도
- ③ 부정식 보도

해설

- ① 경마식 보도: 후보들의 지지율 양상, 선거 토론회 방송에서 표출된 후보자 간의 갈등 등과 같이 흥미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초점을 둔다.

② 개인화 보도: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다. 개인화 보도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③ 부정식 보도: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한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한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경마식 (보도)	3점
②	개인화 (보도)	4점
③	부정식 (보도)	3점

문항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나]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고,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興),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룰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

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 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苕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 정약용, 「여유당기」

*경례의 이동: 경전이나 예법 해석의 같고 다름.

*조신의 시비: 신하들이 낸 의견의 옳고 그름.

*이것: 앞에서 언급한 '여유(與猶)'라는 노자의 말을 이룸.

*문미: 문 위에 가로 댄 나무.

[문제 7] <보기2>는 <보기1>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1>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의미가 서로 정반대가 되는 두 단어(또는 구)의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반의 관계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죽다'와 '살다'의 관계처럼 한 영역 안에서 중간 항이 없이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는 반의 관계를 상보 반의 관계라고 한다. 상보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동시 긍정이나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반의어 쌍을 묶어서 함께 사용하면 역설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역설은 문학 작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보기2>

(가)에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절망이 없는 희망'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희망을 하는 동시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희망이 없는 희망'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통해 '절망'과 연계되어 생겨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의 '희망이 없는 희망'은 <보기1>의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는 '자기는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고민이 드러난다. 이때 (나)의 화자에게 “‘하다’를 선택하는 것”과 “‘그만두다’를 선택하는 것”의 관계는 <보기1>의 (②)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역설
- ② 상호배타적 (관계)

해설

- ①: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상태이므로 '절망이 없'고 희망만 있는 상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상태와 '희망'을 가진 상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는 희망'은 역설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절망'과 연계되어 생겨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②: “‘하다’를 선택하는 것”과 “‘그만두다’를 선택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배타적인 관계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역설	4점
②	상호배타적 (관계)	6점

문항 8

※ 문항 7의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문제 8] <보기>는 (나)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나)는 정약용이 지은 기(記)의 하나이다. 기는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 양식이다. 기가 다루는 대상은 특정 인물, 사건, 물품이나 풍경 등 매우 잡다하다. (나)에서 정약용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나열하며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약용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엿볼 수 있는데, 그중에는 관직자로 생활했던 정약용의 경험도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은 관직자로서 경계해야 할 그릇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관직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를 의문형 문장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초천에 돌아와 살게 된 정약용은 자신의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집의 이름을 짓고 이 글을 썼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① ㉠에 해당하는 문장: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에 해당하는 문장: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관직에, 흠치겠는가
② 초천에, 보인다

해설

- ①: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흠치겠는가.’에서 글쓴이는 관직자로서 공금을 농간하면 안 된다는 관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의문형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초천(苕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에는 초천에 돌아와 살게 된 정약용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집의 이름을 짓고 글을 썼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관직에, 흠치겠는가	4점
②	초천에, 보인다 (‘초천(苕川)에’도 정답으로 인정함) -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글은 맞고 한자 표기가 틀린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단, ‘한자’만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자가 틀렸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6점

문항 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뻐거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는……정확한……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가.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짊 움켜 짚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यो.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 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통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오상원, 「유예」

[나]

판잣집 유리막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쫓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문제 9]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각각 제시문의 (가)와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작품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전쟁과 무관할 수 없다. (가)와 (나)에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작품 속 주요 소재를 통해 드러난다. 가령 (가)에서 ‘(①)’은/는 작품 안에서 시각적 이미지나 촉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여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고 냉혹한 전쟁의 속성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된다. 한편 (나)에서 ‘(②)’은/는 폐허가 된 삶의 터전과 대비를 이루면서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에서 화자의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게 하는 소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눈
② 개나리

해설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다. (가)와 (나)에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작품의 주요 소재를 통해 드러난다. 가령 작품 안에서 ‘눈’은 시각적 이미지나 촉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여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고 냉혹한 전쟁의 속성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된다. 한편 (나)에서는 ‘개나리’가 폐허가 된 삶의 터전과 대비를 이루면서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에서 화자의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게 하는 소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눈	4점
②	개나리	6점

2024학년도 인문계 B형

문항 1

※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시 청소년 정책 제안 제도’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함.

[학생의 초고]

○○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 청소년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시 일부 지역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구간을 설정하고, 승객은 자신이 지정한 정류장에서 선택한 시간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시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버스의 일 운행 횟수가 4회 이내인 곳이 많아 한번 버스를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당장 필요할 때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버스 이용 고객이 많지 않아 운임료만으로는 버스 운행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버스 회사에 ○○시가 매년 상당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현재 대중교통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업자들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 시청과 ○○시 농촌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시의 농촌 지역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시는 대중교통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시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은 현재 우리 ○○시가 실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 제안이 주민들이 더 행복한 ○○시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 <보기>는 초고 작성을 위해 작성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서명 운동을 통한 생활 체육관 건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생활 체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 ② 생활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활 체육관이 지역 사회에 주는 효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 편집자 주: 대학 공개 자료의 <보기>는 위와 같이 ‘생활 체육관 건립’에 관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어 제시문(수요 응답형 대중교통)과 맞지 않는다. 예시 답안의 해설에 따르면 ①은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교통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계획, ②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으로 ○○시가 현재의 교통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제시’하는 계획에 해당한다.

-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수요, 제도입니다
- ② 더구나, 있습니다

해설

- ① 첫째 문단의 문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구간을 설정하고, 승객은 자신이 지정한 정류장에서 선택한 시간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에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교통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둘째 문단의 문장 ‘더구나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버스 이용 고객이 많지 않아 운임료만으로는 버스 운행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버스 회사에 ○○시가 매년 상당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에서 현재 제도의 문제점으로 ○○시가 현재의 교통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수요, 제도입니다	5점
②	더구나, 있습니다	5점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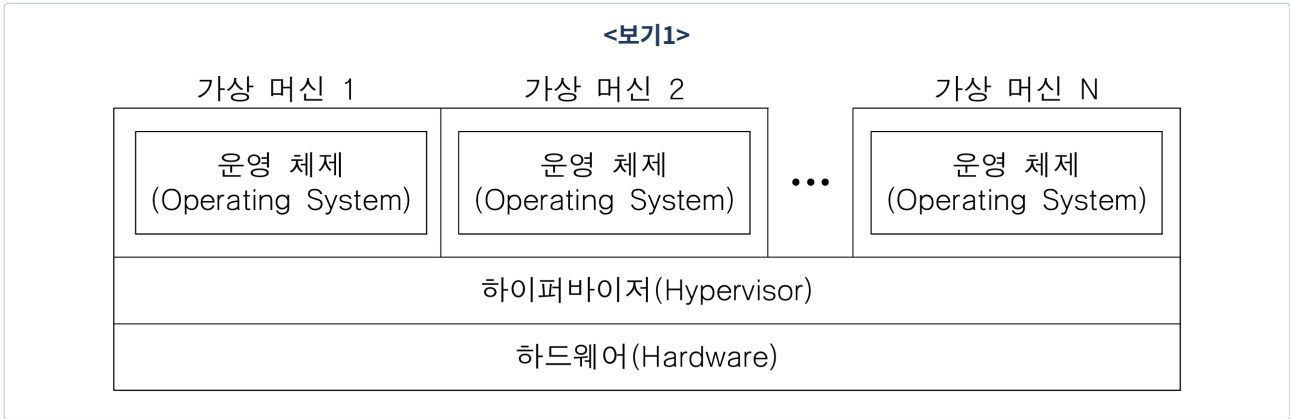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최근 컴퓨팅 환경은 인터넷과 결합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IT 시스템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는 가상화, 클러스터 관리, 분산 시스템 등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는 가상화를 꼽을 수 있다.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해 물리적 한계에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분리, 통합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일컫는다. 가상화를 통해 하나의 장치로 여러 동작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장치를 묶어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장치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면 단일 장치를 관리할 때보다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가상화는 접근 방법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추상화된 계층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른다. 하이퍼바이저는 CPU나 메모리 같은 물리적 컴퓨팅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 체제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고, 다수의 운영 체제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실제 하드웨어 대신 하이퍼바이저가 구축한 가상 머신을 접하게 된다. 가상 머신은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단지 일부에서만 실행되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상 머신은 자체 운영 체제를 실행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사용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 제공해주는 IaaS 모델이 있다. 사용자는 저장 장치, CPU, 메모리 등 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요청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이다.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구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PaaS 모델이 있다. PaaS 제공자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PaaS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개발 환경의 설정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PaaS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SaaS 모델이 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거나, 사용자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사용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관리 권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

[문제 2] <보기1>은 제시문의 ㉠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그림이고, <보기2>는 <보기1>을 활용하여 ㉠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1>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2>

가상 머신은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에서 실행된다. 가상 머신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일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상 머신은 자체 (①)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동된다. 그 결과 각각의 가상 머신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일부를 활용하지만 독립적인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②)이다.

- ①: _____
-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 ②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해설

- ①: 각각의 가상 머신은 자체 운영 체제를 실행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한다고 하였다.
- ②: 하이퍼바이저는 물리적 하드웨어의 일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가상 머신을 작동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운영 체제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도 정답으로 인정함) - ‘한글(영문)’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글은 맞고 영문 표기가 틀린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단, ‘영문’만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영문이 틀렸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5점
②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도 정답으로 인정함) - ‘한글(영문)’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글은 맞고 영문 표기가 틀린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단, ‘영문’만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영문이 틀렸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5점

문항 3

※ 문항 2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문제 3]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중 (㉠) 모델은 다른 두 모델과 달리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직접 구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 모델은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제공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모델과 달리, (㉢)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에서 자신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 _____ ㉡: _____ ㉢: _____

예시 답안

정답

- ㉠ IaaS (모델)
- ㉡ SaaS (모델)
- ㉢ PaaS (모델)

해설

- ㉠: 제시문에 따르면 IaaS (모델)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직접 구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사용자에게 따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제시문에 따르면 SaaS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거나, 사용자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제시문에 따르면 PaaS (모델)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 ㉠~㉢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IaaS (모델)	4점
㉡	SaaS (모델)	3점
㉢	PaaS (모델)	3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L)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따라서 L이 참이라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L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므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한다.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 한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지시성이 있다.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위계론’을 제시했다.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라 한다.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언어라 한다. 메타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덧붙여 만든다. 이때 메타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 만약 메타언어 뒤에 진리 술어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언어가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언어에 포함된 진리 술어는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있을 수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 또 한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4] <보기>는 제시문의 ㉠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 ㉠은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는 역설에 해당한다. 타르스키는 고전 논리의 관점을 고수하면서도 이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 위계론을 제안했다. 타르스키에 의하면 ㉠의 진리치가 역설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와 같은 (㉠)을/를 갖기 때문이다. 타르스키의 언어 위계론에서 ㉠은 ‘거짓이다’와 같은 진리 술어를 포함한 메타언어이며, 메타언어는 그보다 낮은 위계의 언어인 (㉡)을/를 언급하는 문장일 뿐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문장은 아니다. 타르스키는 이와 같

은 설명을 통해 ㉠이 일으키는 역설을 해소한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 같은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크립키의 주장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논리 규칙 중 (㉢)을/를 포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자기 지시성
- ② 대상 언어
- ③ 배중률

해설

㉠의 문장이 역설로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 지시성 때문이며, 메타언어는 대상 언어를 언급하는 언어이며, 크립키는 참도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갖는 문장을 허용함으로써 배중률을 포기한 것과 같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자기 지시성	3점
②	대상 언어	3점
③	배중률 (참고: ‘배중율’은 오답으로 처리)	4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원리로 물건의 무게를 측정할까?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지레의 원리를 응용한다.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양쪽의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것이다.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놓고, 다른 한쪽 접시에는 추를 놓아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 추의 무게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 그러나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한 것이 대저울이다.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쪽에는 작은 추를 걸어 움직여서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물체의 무게’×‘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 ‘추의 무게’×‘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이므로 받침점으로부터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알면 물체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다.

전자저울은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인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금속 탄성체에는 스트레스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여기서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력과 동일하며,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스트레스에 따라 금속 탄성체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난다.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인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저항 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 약 100~200배를 증폭시키고 전기 신호로 전환한 다음,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전자저울의 표시계에 물체의 무게가 나타나게 된다. 전자저울에서 금속 탄성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시간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탄성의 한계점이 높아야 한다.

[문제 5] <보기1>은 실험 결과이고,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보기1>

-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0kg의 추를 걸어 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물체 ㉠을 걸었을 때, 대저울의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었다.
-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 A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이다. 전자저울 A에 10kg의 상자를 올렸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2cm가 늘어났다.

<보기2>

<보기1>에서 물체 ㉠의 무게는 (①)kg이고, 물체 ㉠을 <보기1>의 전자저울 A에 올려 놓으면 전자저울 A의 금속 탄성체의 전체 길이는 (②)cm가 될 것이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15 (kg)
② 13 (cm)

해설

- ① 제시문에서 ‘물체의 무게’×‘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 ‘추의 무게’×‘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라고 했다. <보기1>의 첫 번째 실험결과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0kg의 추를 걸어 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물체 ㉠을 걸었을 때, 대저울의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었다고 했다. 제시

문에서 ‘물체의 무게’×‘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추의 무게’×‘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므로, 물체 ㉔의 무게는 15kg이 된다.

- ② 제시문에 의하면 전자저울의 금속탄성체에는 가해지는 압력, 즉 무게에 비례하여 인장 변형이 일어난다. <보기1>의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 A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이고, 전자저울 A에 10kg의 상자를 올렸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2cm가 늘어났다고 했으므로, 전자저울 A의 금속탄성체는 5kg의 무게가 가해질 때마다 1cm씩 길이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게가 15kg인 물체 ㉔를 전자저울 A 위에 올려 놓으면 전자저울 A의 금속탄성체의 길이는 3cm가 늘어날 것이다.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금속탄성체의 길이가 10cm이므로, 전자저울 A에 물체 ㉔를 올려 놓았을 때, 전자저울 A의 금속탄성체의 전체 길이는 13cm가 된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15 (kg)	4점
②	13 (cm)	6점

문항 6

[문제 6] <보기1>은 수업 시간의 대화 내용이다. <보기1>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2>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선생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음운 변동에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 등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학생 1: ‘(①)’에서 유음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 2: ‘(②)’은/는 비음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해요.

선생님: 모두 정말 잘 찾았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 3: 네, 선생님. ‘(③)’은/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잘 찾았어요.

<보기2>

칼날, 국물, 집합, 닫히다, 밥상, 같이, 독서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칼날
- ② 국물
- ③ 닫히다

해설

- ① ‘칼날’은 [칼랄]로 발음되는데, 이때 ‘ㄴ’이 선행 음절의 말음 ‘ㄹ’ 뒤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② ‘국물’은 [궁물]로 발음되는데, 이때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㉓ ‘닫히다’는 [다치다]로 발음되는데, 이때에는 먼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칼날	3점
②	국물	3점
③	닫히다	4점

문항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 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제1수>

이곡(二曲)은 어딴디고 화암(花巖)의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의 솟출 씩워 야외로 보너로라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기 혼들 엇더허리 <제3수>

오곡(五曲)은 어딴디고 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수변 정사(水邊精舍)는 소쇄함*도 가이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흐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딴디고 조협(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황혼의 낙덕(落得)을 메고 대월귀(帶月歸) 흐노라 <제7수>

구곡(九曲)은 어딴디고 문산(文山)의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의 못처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제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주모 복거: 살 만한 터를 가려 정하고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살아감.

*소쇄함: 기운이 맑고 깨끗함.

[나]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 김용택, 「저 새」

[문제 7] <보기2>는 <보기1>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시적 대상이란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모든 소재를 지칭한다. 이러한 시적 대상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특정한 관념이나 상황, 정서와 같은 무형의 것도 있다.

<보기2>

(가)에서 대상을 의인화한 시어 (①)은/는 자연을 즐기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시적 대상이다. 그리고 (나)에서 색채 이미지가 활용된 시어 (②)은/는 캄캄한 어둠과 대비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한 시적 대상이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고기
- ② 새하얀 새(여)

해설

시적 대상이란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모든 소재를 지칭한다. 이러한 시적 대상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특정한 관념이나 상황, 정서와 같은 무형의 것도 있다.

(가)에서 대상을 의인화한 시어는 ‘고기’다. ‘고기’는 자연을 즐기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시적 대상이다. 그리고 (나)에서 색채 이미지가 활용된 시어 ‘새하얀 새’는 캄캄한 어둠과 대비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한 시적 대상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고기	5점
②	새하얀 새(여)	5점

문항 8

[문제 8]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의 (가)와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가)에는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과 자연을 즐기는 자세가 형상화되어 있는데, (가)의 ‘제(①)수’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강학을 하고자 하는 태도 외에도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나)에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초반부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묘사되고 있으나, 시행 ‘(②)’에서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비유적인 시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나타난다.

①: _____

②: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제)6(수)

② 저 남산 꽃산에

(‘저 남산 꽃산에’ 대신에 ‘9행’으로 쓴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

해설

(가)에는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과 자연을 즐기는 자세가 형상화되어 있는데, (가)의 ‘제6수’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강학을 하고자 하는 태도 외에도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나)에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초반부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묘사되고 있으나, 시행 ‘저 남산 꽃산에’서부터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비유적인 시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부분부터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제)6(수)	5점
②	저 남산 꽃산에 (‘저 남산 꽃산에’ 대신에 ‘9행’으로 쓴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	5점

문항 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무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 본성이 곧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생기(生氣)가 충만한 가운데 직립(直立)해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으로 말하면, 어떤 나무이든 간에 모두가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고고한 자태를 과시하면서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직 송백(松柏)을 첫손가락에 꼽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송백이 유독 옛날부터 회자(膾炙)되면서 인간에 비견(比肩)되어 왔던 것이다.

어느 해이던가 내가 한양(漢陽)에 있을 적에 거쳐하던 집 한쪽에 소나무가 네다섯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몸통의 높이가 대략 몇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가 작달막하게 뒤틀린 채 탐스러운 모습을 갖추고만 있을 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도 한결같이 거꾸로 드리워진 채, 긴 것은 땅에 끌리고 있었으며 짧은 것은 몸통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휘감겨 서린 모습이 뱀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고 수레 위의 둥근 덮개와 일산(日傘)이 활짝 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는데, 마치 여러 가닥의 수실이 엉겨 붙은 듯 들쭉날쭉하면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타고난 속성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하여 생긴 모양이 그만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그 나무의 본성이 그러해서가 아니다. 이 나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다른 산에 심어진 것과 비교해 보아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났을 적에 사람이 조작(造作)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들은 골라서 베어 버리고, 여려서 유연(柔軟)한 가지들만을 끌어와 결박해서 휘어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높은 것은 끌어당겨 낮아지게 하고 위로 치솟는 것은 끈으로 묶어 아래를 향하게 하면서, 그 올곧은 속성을 동요시켜 상하로 뺄으려는 기운을 좌우로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면서 바람과 서리의 고초(苦楚)를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그 줄기와 가지들이 완전히 변화해 굳어져서 저토록 괴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지 끝에서 새로 싹이 터서 돌아나는 것들은 그래도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서 무성하게 곧추서곤 하는데, 그럴 때면 또 돌아나는 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고 자르면서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곤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이한 소나무가 된 것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그 나무의 본성이라고 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어쩌면 그 물건이 우리 사람의 경우와 그렇게도 흡사한 점이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보면, 그 용모를 예쁘게 단장하고 그 몸뚱이를 약삭빠르게 놀리면서, 세상에 보기 드문 괴팍한 행동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를 고상하게 여기기만 할 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잊고 있으니, 평이(平易)하고 정직(正直)한 그 본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어떠하다 할 것이며,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기(浩氣)에 비추어 보면 또 어떠하다 할 것인가. 비겟덩어리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아첨을 하여 요행히 이득이나 얻으려고 하면서, 그저 구차하게 외물(外物)을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는 자들을 저 왜송(矮松)과 비교해 본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겠는가.

(중략)

내가 일찍이 산속에서 자라나는 송백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하늘을 뚫고 곧장 위로 치솟으면서 뇌우(雷雨)에도 끄떡없이 우뚝 서 있었다. 이쯤 되고 보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때에도 자연히 우러러 보고 엄숙하게 공경심이 우러나는 느낌만을 지니게 될 뿐,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노리갯감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은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호오(好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대상을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덕을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대저 그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요, 자기 본성대로 따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자라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니, 저 왜송을 탓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청사(靑蛇, 을사년) 납월(臘月)* 대한(大寒)에 쓰다.

- 이식, 「왜송설(矮松說)」

*납월: 음력 선달을 달리 이르는 말.

[문제 9]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2음절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설(說)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다. 설에서 글쓴이는 주변 사물을 관찰하거나 직접 체험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서술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제시문의 글쓴이도 ‘소나무 네다섯 그루’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곧게 자라는 본성을 잃어버린 ‘(①)’을/를 자신의 본모습을 잃고 아침과 이익을 일삼는 사람들과 연관 짓고, 곧게 자라는 ‘(②)’을/를 본성을 지키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지닌 사람들에 빗대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본성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왜송
- ②: 송백

해설

제시문에서 이식은 왜송을 교언영색하고 곡학아세하는 사람으로, 송백은 호연지기를 지닌 군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왜송 (‘왜송(矮松)’도 정답으로 인정함) -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글은 맞고 한자 표기가 틀린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단, ‘한자’만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자가 틀렸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5점
②	송백 (‘송백(松柏)’도 정답으로 인정함) -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글은 맞고 한자 표기가 틀린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단, ‘한자’만으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자가 틀렸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5점

2024학년도 자연계 C형

문항 1

※ 다음은 MBTI 성격 검사 열풍을 비판하는 연설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MBTI 유형별 공부법’, ‘MBTI로 보는 연봉 순위’, ‘MBTI 소개팅 앱’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지금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 과몰입하여 유형에 끼워 맞추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를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MBTI를 신뢰하시나요?

MBTI는 인간의 성격을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의 8가지 지표로 나누어 각 대극에 놓인 두 성격 유형 중 더 가까운 쪽에 해당하는 알파벳 4개의 조합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MBTI 검사에는 검사를 통해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해나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넘어선 지나친 의존과 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MBTI의 16개 유형 중 하나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성격을 씨앗으로 보고 성격은 생애 발달 주기, 환경 등과 상호 작용하며 변화해 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완전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성격 유형은 인간의 수만큼 다양하며 변화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으로 단정 지은 검사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MBTI는 검사의 방법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10분 내외의 인터넷 간이 검사는 정식 검사 문항과는 크게 달라 타당도가 낮습니다. 또 자신의 성향을 직접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 피검자의 솔직함에 기대어 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MBTI 검사 결과를 중요한 진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MBTI를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탐색하는 데에 활용하는 정도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MBTI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맹신은 금물입니다. MBTI가 당신의 명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문제 1]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MBTI 검사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② MBTI 검사 항목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분야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최근, 있습니다
- ② 분석, 하였습니다

해설

- ①: MBTI 검사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시문-연설문 초안의 첫문단에 있다. 최근의 MBTI가 활용되는 열풍을 소개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 ②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된 관련 분야 권위자의 견해는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 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성격론이 소개되었다.(분석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성격을 씨앗으로 보고 성격은 생애 발달 주기, 환경 등과 상호 작용하며 변화해 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완전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최근, 있습니다	5점
②	분석, 하였습니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와 같은 다양한 위험 정보 수용 주체들에게 전달된다. 위험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반응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위험 정보 확산 과정’은 크게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와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 전달되는 정보에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다.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는 정보량, 논쟁의 정도, 선정적 표현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즉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커지게 된다.

한편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전달하게 된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 및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이때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대중은 특정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순화해 인식함으로써 편향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림짐작에 의해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해석적 오류나 편견이 발생한다. 즉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결국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특성이 불확실할 때 대중이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어 사회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미디어는 대중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가령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해 위험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문제는 미디어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관련 정보를 과잉 생산하고 유포하는 속성이 있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일차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지만, 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구성과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제 2]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의 사례를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20△△년 ○월 주택가 도로의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틀 뒤 한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량을 다시 측정하였고, 최초 사건의 보도 5일 후에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 검출량은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 운동 단체, 방사선 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사흘 동안 4,000여 건에 해당하는 보도가 집중되었으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5,000여 건의 추가 보도가 지속되었다. ㉢사건 및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에는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대 질병과 연관된 표현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전달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었다.

<보기2>

<보기1>의 사례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 과정을 보여준다. 제시문에 의하면 위험 상황에 대해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될 수 있다. 이를 <보기1>의 사례에 적용하면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 중, ㉠은 (①)에 해당하고, ㉡은 (②)에 해당하고, ㉢은 (③)에 해당하므로 ㉠~㉢의 보도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 논쟁의 정도
- ② ㉡ 정보량
- ③ ㉢ 선정적 표현의 정도

해설

<보기1>에 나타난 사례에서 제시문에서 언급된 ‘미디어’에 의한 1차 전달과정에서 위험 정보의 확산이 높아지는 원인 세 가지 중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제시문에서는 논쟁의 정도나 정보량, 선정적 표현의 정도가 미디어에 의한 위험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키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논쟁에 불을 붙여서 위험성을 증폭시켰다.
- ㉡: 사건의 최초보도부터 추가 보도에 이르기까지 집중된 보도는 각각 4천건과 5천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의 양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켰다.
- ㉢: 미디어에 의한 전달과정에서 주택가의 방사선 보도는 그 방사선량이 인체에 백혈병이나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어 위험상황을 고조시켰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논쟁의 정도	4점
②	정보량	3점
③	선정적 표현의 정도	3점

문항 3

[문제 3]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개인, 집단, 사회와 같은 주체는 일차적으로 주로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 (①)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인, 집단, 사회와 같은 주체가 ‘정보 (①) 주체’로부터 ‘정보 전달 주체’가 되는 과정에는 위험 정보 확산 과정의 두 단계 중, (②) 단계가 개재(介在)한다. 이 단계에서 정보 주체는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는데, 그때 해석적 오류나 편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대중은 이해하기 힘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단순화하여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수용
- ②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

해설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제시문은 미디어에 의한 위험 상황 관련 정보의 전달이 2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말하고 전달 단계에서 어떻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며, 다음 단계인 해석과 반응 단계에서 어떻게 정보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미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에 대해서 ‘정보 전달 시스템’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대중들이 정보를 전달받는다라는 것이 우선은 정보 수용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지 물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용자들에 의해 정보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개입하는 ‘단순화’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수용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 전달의 두 번째 단계인 해석과 반응의 단계에서 일어난다.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수용	4점
②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	6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238이고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속에 0.7%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 이 상태로는 우라늄-235의 비율이 낮아 핵분열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이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우라늄-235의 비율을 3~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원자로에 넣은 핵연료의 우라늄-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내는데, 이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한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235가 남아 있고, 우라늄-238, 우라늄-239가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239, 그리고 이 외에도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후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을 핵 재처리라고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이 있다.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한다. 다음으로는 절단한 연료봉을 90°C 정도의 질산 용액에 담가 녹인다. 이후 질산에 녹인 핵연료를 유기 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는다. 이후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얻을 수 있다. 우라늄-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플루토늄-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 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루토늄-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이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한 후, 절단한 연료봉을 600°C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든다.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에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 기타 다양한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C까지 올려 용해시킨다.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 주는데, 우라늄-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음극에는 우라늄-235만 달라붙는다. 여기에서 우라늄-235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이후 전압을 올리면 남아 있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 다른 핵물질이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게 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플루토늄-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속 증식로: 고속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이용하여, 소비한 연료 이상의 핵분열 물질과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로.

[문제 4]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과 ㉡은 둘 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추출해 내는 (①) 공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추출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은 추출 과정에서 용액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은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추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에서 추출된 플루토늄-239와 ㉡에서 추출된 플루토늄-239의 (②)이/가 달라진다. 특히 ㉡의 경우, 추출된 플루토늄-239의 (②)이/가 낮기 때문에 ㉠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핵 재처리 공정
②: 순도

해설

두 공법 모두 핵 재처리 공정이지만, 플렉스 공법은 플루토늄-239가 다른 핵물질과 분리되어 추출되는 반면, 파이로프로세싱에서는 다른 핵물질과 섞여 추출되기 때문에 두 공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239의 순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플루토늄-239가 순도가 높게 추출되는 플렉스 공법에서 생기는 문제, 즉 플루토늄-239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핵 재처리 (공정)	4점
②	순도	6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의 장원이 명주 날리군에 있었다.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벼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쭉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댈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웃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털너털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縣)—에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중략)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작가 미상, 「조신의 꿈」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저었다. 갈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걱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줄 흙을 헤치고 나즉—이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문제 5]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시간 또는 공간과 관련된 소재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이다. (가)에서 ‘해현’은 주인공이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가)에서 주인공은 ‘해현’에서 발견된 ‘(①)’을/를 통해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현실적 공간으로 확장하게 된다. (나)에는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에는 시간 및 공간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묘지’, ‘무덤’ 등은 화자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공간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나)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도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수식어와 결합한 시어 ‘(②)’은/는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돌미륵
- ② 적막한 황혼

해설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시간 또는 공간과 관련된 소재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이다. (가)에서 ‘해현’은 주인공이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가)에서 주인공은 ‘해현’에서 발견된 돌미륵을 통해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현실적 공간으로 확장하게 된다. (나)에는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에는 시간 및 공간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묘지’, ‘무덤’ 등은 화자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공간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나)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도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수식어와 결합한 시어 ‘적막한 황혼’은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돌미륵	4점
②	적막한 황혼	6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땡도 섶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가지취: 산지의 맑은 숲속에서 자라는 참취나물.

*금점(金店)판: 예전에, 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섶벌: 나무 섶에 집을 틀고 항상 나가서 다니는 벌.

*머리오리: 낱알의 머리털.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적절한 시행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백석 시 「여승」의 시행 ‘(㉠)’은/는 청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한 표현을 통해 ‘여인’의 마음 속에 가득했을 서러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시행 ‘(㉡)’은/는 출가(出家)의 과정에서 ‘여인’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시적 대상의 다양한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와 언어적 표현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① ㉠에 들어갈 시행: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에 들어갈 시행: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여인은, 울었다
- ② 산땡도, 있었다

해설

- ①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에서 ‘울었다’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차게’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감각의 전이를 통해 ‘여인’의 마음 속에 가득했을 서러움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산(山)평도 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는 여인이 출가하면서 느꼈을 고통을 ‘산평’에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여인은, 울었다	5점
②	산평도, 있었다 (‘산(山)평도’도 정답으로 인정)	5점

2024학년도 자연계 D형

문항 1

※ 다음은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유준: 국어 수업 조별 과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위해 지난번에는 전통 음식 문화를 소재로 정했었는데, 오늘은 글의 주제를 정했으면 해.
- 현우: 반 친구들이 예상 독자이니 친구들의 선호도를 고려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특이한 음식들을 소개해 보자.
- 지민: 특이한 음식은 친구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지만 호기심을 느끼는 구체적인 대상은 개인마다 달라서 음식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현재 즐겨 먹는 음식과 전통 음식의 관계를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
- 유준: 현재 즐겨 먹는 음식과 전통 음식의 관계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니?
- 지민: 현재에도 즐겨 먹는 전통 음식들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다뤄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 현우: 음식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찾아야 할 자료가 많아서 우리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는 K-푸드가 각광받고 있으니 그 내용은 어떠니?
- 유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은 이전에도 많이 다뤄진 거 아냐?
- 지민: 차라리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을 법한 전통 음식 문화를 다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서 글로 쓰기도 편할 것 같아.
- 현우: 전통 음식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많지만 그런 음식들은 친구들에게 친숙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음식일 수도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해.
- 유준: 만약 친숙한 음식인데 그 음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거라면 어때?
- 현우: 좋은 생각이네. 혹시 생각해 본 주제가 있니?
- 지민: 예전에 읽은 책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조선 사람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소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던데.
- 유준: 그래. 소고기는 친구들도 잘 아는 음식이니까 좋을 것 같아.

[문제 1] <보기>는 제시문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해당하는 학생의 발언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

- ① 대화 참여자의 앞선 발언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언급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둘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첫 어절: 현재, 마지막 어절: 있니
- ② 첫 어절: 만약, 마지막 어절: 어때

해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언급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부분은 ‘유준’의 두 번째 대화이고, 대화 참여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둘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유준’의 네 번째 대화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현재, 있니(?)	5점
②	만약, 어때(?)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서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 당시 민간에는 미포(米布), 즉 쌀과 베라는 물품 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세종은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보고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섬서의 관장 아래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되* 또는 저화 1/2장으로 정했다.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발행 다섯 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1되로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세종은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 주화를 환수했다. 하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에 의해 백성들은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 하고 명목 가치는 은 1냥*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다.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했는데, 이는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두 배 늘리고 은 1냥을 주화 100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 안에 쌓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錢荒)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752년 영조 때 초주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됐다. 발행 당시 은 1냥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후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거래의 수단으로는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주화: 쇠붙이를 녹여 화폐를 만들, 또는 그 화폐.

*문: 조선 시대에 화폐를 세던 단위.

*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한 되는 한 말의 1/10임.

*냥: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무게의 단위.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1679년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1678년에 발행된 상평통보에 비해 (①) 가치가 상승했다.
- 발행 당시 명목 가치는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았지만 주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의 양은 중형전과 대형전 중 (②) 이/가 더 많았다.

■ 예시 답안

정답:

①: 명목(액면)

②: 대형전

해설: 상평통보 가운데 초주단자전과 대형전의 발행 당시의 명목 가치를 비교하면 대형전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중형전과 대형전의 발행 당시 필요한 구리의 양은 대형전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명목 (가치)’ 또는 ‘액면 (가치)’	5점
② 대형전	5점

문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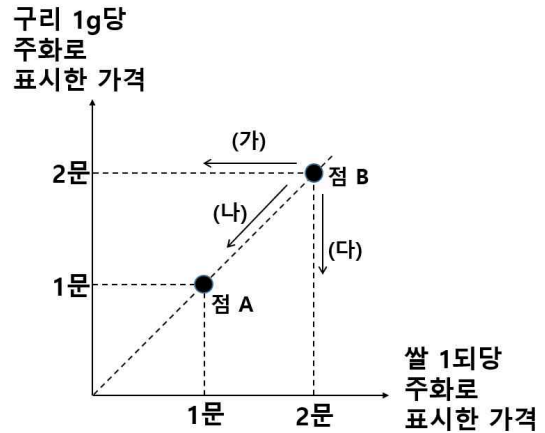
※ 앞의 제시문(문항 2와 공통)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3]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세종’ 때 주화 정착이 실패한 현상을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단계별로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1문에 구리 1g이 들어 있다고 하자.

1. 점 A 상황에서 구리 1g 또는 쌀 1되되는 주화 1문의 가격을 갖는다.
2. 이후 점 B 상황에서 주화 2문을 주어야 구리 1g 또는 쌀 1되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주화의 명목 가치는 주화에 들어 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주화를 구리로 녹여서 팔려는 자들도 생겨났다.



3.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고 했다. 이는 그래프의 점 B 상황을 (가)~(다) 방향 중 (①) 방향으로 이동시키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이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했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 쌀의 가격만 하락하고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이는 그래프에서 점 B 상황이 (가)~(다) 중 (②)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화폐로 쌀 대신 포를 사용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었다.
4. 결국 세종이 의도한 주화의 정착은 실패하고 말았다.

예시 답안

정답:

①: (나) ②: (가)

해설: 그래프상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이면 구리와 쌀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나)로 옮겨 간다. 하지만 세종의 정책은 쌀의 가격만 낮추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로 옮겨가게 된다.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나) ‘(나)’에서 ‘()’ 표시 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	5점
② (가) ‘(가)’에서 ‘()’ 표시 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	5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재란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과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 도로와 일반 도로가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다.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 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때 ‘한산한 고속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꽉 막힌 고속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일반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야의 일반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문제 4] 문맥상 제시문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

■ 예시 답안

정답:

- ㉠: 클럽재
- ㉡: 사적 재화
- ㉢: 공유 자원
- ㉣: 공공재

해설:

㉠ ‘한산한 고속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개인의 고속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고속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산한 고속도로’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의 성격을 가진다.

㉡ ‘꽉 막힌 고속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개인의 고속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고속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꽉 막힌 고속도로’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가진다.

㉢ ‘출퇴근 시간의 일반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일반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일반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의 일반도로’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 자원의 성격을 가진다.

㉣ ‘심야의 일반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일반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일반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따라서 ‘심야의 일반도로’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 채점 기준

- ㉠~㉣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 클럽재	2점
㉡ 사적 재화	3점
㉢ 공유 자원	2점
㉣ 공공재	3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갯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김창호: 동진 광업소 동 5 갯에 묻혀 있던 광부 김창호.

홍 기자: 아? 김창호 씨?

김창호: (반갑다) 역시 잘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뭐 불일itsu? 나 지금 바쁘는데…….

김창호: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홍 기자: (돌아서서 5천 원짜리 주며) 이거 가지구 가시우,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면 거기서 사람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를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김창호: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소?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시오, 서울시장도 나한테…….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잃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홍 기자: 결론, 따라서 마스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마스크는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긴요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마스크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마스크!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중략)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 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에 라이트 비친다.)

홍 기자: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광부 34명이 매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광부 중 폭발한 갯구 아래 쪽 대피소에 있던 배관공 22세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 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 난 갯구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파리를 멘 김창호 일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잠깐만!

(이불 보파리를 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다.)

홍 기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갯구 매몰로 16일간 굴속에 갇혀 있다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며 박수친다. 김창호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한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천 2백 미터 갯내 대피소에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갯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김창호: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났다.)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움직이지 않음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펌프로 공기도 계속 넣어 줘야 되구요.

(그사이 기자 한 사람 뛰어나와서 홍 기자에게 귀엣말한다. 홍 기자 마이크 뺏어 자기 말을 한다.)

홍 기자: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포클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의 한 부분을 들어내어 매몰된 인부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싱겁게 끝나는군. 이런 걸 특종이라구 취재하다니, 자, 갑시다.

- 윤대성, 「출세기」

[문제 5]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에 들어갈 적절한 말, 그리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출세기」는 언론에 의해 작중 인물 ‘(①)’이/가 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중 인물 ‘(①)’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는 언론의 습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너진 갯구에서 16일 만에 구출	→	기사 소재가 됨	→	관심, 인터뷰
금전적 도움 요청	→	기사 소재 안 됨	→	무관심
광부 매장 사건 발생	→	기사 소재가 됨	→	관심, 인터뷰
광부 구출	→	기사 소재 안 됨	→	무관심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 인물의 대사 ‘(②)’을/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김창호
- ② 그러나, 것이다

해설:

- ①: 도식화된 표는 흥 기자가 기사의 소재가 될 때만 김창호에게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하며, 기사의 소재가 되지 않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음을 정리한 것이다.
- ②: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마스크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에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작품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다.

■ 채점 기준

- ①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②는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김창호	4점
② 그러나, 것이다	6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문제 6] <보기2>는 <보기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것이다. 제시문에서 <보기2>의 ㉠, ㉡이 나타나는 연을 찾아 각 연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1>

성찰이란 타자화된 시선, 즉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를 교차시키면서 부끄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대면을 통해 자기 변화를 도모하거나 부정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찰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이어 가야 할 가치를 전승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보기2>

이 시의 화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성찰의 순간을, 거울을 닦는 행위를 통해 성찰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의 성찰은 이중적인 양상으로 제시되는데, 자아가 놓인 치욕스러운 현실과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하나라면 ㉠현재의 부끄러운 고백을 다시 부끄럽게 떠올릴 미래에 대한 성찰이 또 다른 하나이다. 이 두 성찰을 제시한 후 화자는 끊임없이 거울을 닦으며 성찰에의 의지를 다진다. 하지만 화자에게 현실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독과 비애를 끌어 안고 걸어나가겠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내일이나, 했던가
- ② 그러면, 온다

해설: 윤동주의 「참회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자기성찰을 밀고 나간 작품이다. 이 작품의 특이점은 그 성찰이 시의 화자에 의해서 통시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애 전체에 대한 자기 이해를 이루고, 이로써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견디고자 하는 자기 각성에 이른다는 점이다.

<보기2>의 ㉠현재의 부끄러운 고백을 다시 부끄럽게 떠올릴 미래에 대한 성찰은 작품의 3연에,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독과 비애를 끌어 안고 걸어나가겠다는 삶의 태도는 이 작품의 5연에 잘 나타나고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내일이나, 했던가	5점
② 그러면, 온다	5점

2024학년도 자연계 E형

문항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글을 쓰게 된 동기: 한국은 혁신 기술 연구 개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 출연 기관들의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보도를 접함. 이에 혁신 기술의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로 함.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 작문 목적: 혁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글의 개요

처음	1. ‘혁신 기술’이라는 화제 제시 2. 혁신 기술의 개념과 특성
중간	1.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된 투자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의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2) 우리나라가 개발한 혁신 기술의 활용 실태 ㉔ 정부 출연 기관이 개발한 특허 기술의 활용률이 저조함. ㉕ 매년 혁신 기술 수출액이 혁신 기술 도입액보다 적음. 2. 혁신 기술의 육성 방안 (1) 정부 출연 기관의 특허 활용과 관련된 장애 해소 (2) 혁신 기술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끝	우리나라 혁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혁 및 관련 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혁신 기술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문제 1] <보기>의 ㉑~㉕은 제시문의 개요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후 작성한 자료 활용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㉑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형식으로 쓰시오.

<보기>

- ㉑ 최근 정부 출연 기관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활용되는 비율이 이전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중간-1-(2)-㉔’에서 정부 출연 기관이 개발한 혁신 기술의 활용도가 낮음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㉒ 한국의 GDP 대비 혁신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는 ‘(①)’에서 한국이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큰 힘을 쏟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㉕ 연도별 한국의 혁신 기술 수입액과 수출액을 보여주는 자료는 ‘(②)’에서 매년 혁신 기술 수출액이 혁신 기술 도입액보다 적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중간-1-(1)
② 중간-1-(2)-㉕

해설:

- ① 한국의 GDP 대비 혁신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혁신 기술의 개발을 위해 높은 비율의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② 연도별 한국의 혁신 기술 수입액과 수출액을 보여주는 자료는 매년 혁신 기술 수출액이 혁신 기술 도입액 보다 적음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1, (1), (2), ㉠’ 등과 같은 기호를 완전히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중간-1-(1)	5점
② 중간-1-(2)-㉠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재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여기서 행위자란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로서, 인간뿐 아니라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과 소멸 및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다.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칭하여 이를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번역의 주체와 연결망의 새로운 인식을 통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기존의 시각, 입장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연결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이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 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되며,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에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 불린다. 이러한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자 그 대안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실시한 탐구 활동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 또는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과학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이라는 근대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다. 라투르의 관점에서 구성주의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번역의 주체를 (①)(으)로 한정한 것이다. 반면 이질적 구성주의는 근대주의를 벗어나 행위자에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라투르의 관점은 이질적 구성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유명한 파스퇴르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파스퇴르는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 발효균을 발견하여 ‘젖산 발효 효모’라 명명하고 발효의 과

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파스퇴르는 미생물 발효균이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발효균은 파스퇴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운 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라투르의 관점에서 파스퇴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례에서 번역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②)와/과 (③)이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인간’ 또는 ‘사람’
- ② 파스퇴르
- ③ ‘(미생물) 발효균’ 또는 ‘젖산 발효 효모’ 또는 ‘미생물’

해설

과학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이라는 근대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다. 라투르의 관점에서 구성주의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번역의 주체를 ‘인간’ 또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반면 이질적 구성주의는 근대주의를 벗어나 행위자에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라투르의 관점은 이질적 구성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유명한 파스퇴르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파스퇴르는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 발효균을 발견하여 ‘젖산 발효 효모’라 명명하고 발효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파스퇴르는 미생물 발효균이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발효균은 파스퇴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운 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라투르의 관점에서 파스퇴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례에서 번역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파스퇴르’와 ‘(미생물) 발효균’ 또는 ‘젖산 발효 효모’ 또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②와 ③의 제시 순서는 바뀌어 제시되어도 상관 없음.

답안	배점
① ‘인간’ 또는 ‘사람’	2점
② 파스퇴르	4점
③ ‘(미생물) 발효균’ 또는 ‘젖산 발효 효모’ 또는 ‘미생물’	4점

문항 3

[문제 3]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이 원인임을 강조하는 기술 결정론과 총을 든 범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회 문화 결정론이 대립하여왔다. 전자는 총이 사고의 주범이므로 총기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후자는 범인이 주범이므로 범인을 처벌해야지 총기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보기2>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기1>의 ‘총’과 ‘범인’은 모두 행위 능력을 지닌 행위자로서 이들은 (①)의 과정을 통해 ‘총기 사고’라는 하나의 (②)(으)로 포섭된다. (①)의 과정은 행위자가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즉 상대방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총기 사고’에 대한 기술 결정론의 입장과 사회 문화 결정론의 입장 모두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입장에서는 범인과 총이 서로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번역
- ② 연결망

해설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기1>의 ‘총’과 ‘범인’은 모두 행위 능력을 지닌 행위자로서 이들은 ‘번역’의 과정을 통해 ‘총기 사고’라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된다. ‘번역’의 과정은 행위자가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즉 상대방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총기 사고’에 대한 기술 결정론의 입장과 사회 문화 결정론의 입장 모두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입장에서는 범인과 총이 서로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번역	4점
② 연결망	6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민사 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며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민사 소송이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이루고자 한 소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도 ㉠취송 기한, ㉡정소 기한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취송 기한(就訟期限)’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는 패소시키고 성실히 출석해 대기한 당사자에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승소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취송 기한은 ‘친착 결절법(親着決折法)’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송정*으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까지 거리에 따라 취송 기한을 정했고 이후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 서명하는 것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출석하였을 때는 자기 성명을 직접 쓰도록 했는데 이를 ‘친착’이라고 불렀고, 판결하는 것을 ‘결절’이라고 했다. 친착 결절법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에 따르면, 소송이 개시되어 50일이 되도록 이유 없이 만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송정에 나와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이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정할 날만 헤아렸다.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소 기한(呈訴期限)’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訴狀)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전택조(田宅條)에 따르면, 소송 대상 중 가장 분쟁이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 주택, 노비 등에 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5년을 넘길 시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등을 심사하는 사건 심리는 물론 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권리관계: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송정: 예전에,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

[문제 4]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 ㉡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과 ㉡은 과거 조선 시대에도 현행 민사 소송이 추구하는 이상 중 (㉠)와/과 (㉡)을/를 실현하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은 오늘날의 민사 소송법 중 (㉢)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시 답안

정답

- ① 신속성
- ② 경제성
- ③ 시효

* ①과 ②의 제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 없음.

해설

①, ② 조선 시대의 ‘취송 기한’과 ‘정소 기한’은 모두 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민사 소송 재판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 중,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신속성’과 ‘경제성’이라 할 수 있다.

③ 조선 시대의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訴狀)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제한해 두는 제도이다. 현대의 민사 소송법 중, 정소 기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인 ‘시효 제도’이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①과 ②의 제시 순서는 바뀌어 제시되어도 상관 없음.

답안	배점
① 신속성	3점
② 경제성	3점
③ 시효 (제도)	4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성균관 진사이자 풍류랑인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화산군의 궁녀인 영영을 목격한 뒤 그녀를 깊이 연모하게 된다. 하인 막동의 도움을 받아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서 만나 연정을 고백한 뒤 후일 화산군 댁에서 다시 만나 깊은 인연을 맺는다. 하지만 사랑이 금지된 궁녀의 신분으로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김생과 영영은 헤어지게 된다. 이후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하여 마침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다.

3일 동안의 유가(遊街)에서 김생은 머리에 계수나무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홀을 잡았다. 앞에서는 두 개의 일산(日傘)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위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옷을 입은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다.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백 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화산군 댁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화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부인을 베개로 삼아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렴을 걷고 지켜보았는데, 가히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는 이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안팎을 둘러거리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는 놀라는 척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화산군 댁입니다.” /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획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相思洞記)」

[문제 5] <보기>는 제시문 속 ‘김생’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이 나타나는 문장 한 개와 ㉡이 나타나는 문장 두 개를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

김생은 자신의 목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에 맞추어 연기를 하듯이 말과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김생은 옛 연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여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고, ㉡계획된 상황 속에서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김생은 주도면밀한 성격의 인물로 묘사된다. 이처럼 소설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에는 그 인물이 가진 인간관이나 처세관 등이 담겨 있으며 그러한 인물의 성격 제시를 통해서 소설의 주제는 더욱 날카롭게 부각된다. 이 소설은 조선 후기의 애정 소설로서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 김생의 이와 같은 성격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이 나타난 문장: 첫 어절, 마지막 어절
 ② ㉡이 나타난 첫 번째 문장: 첫 어절, 마지막 어절
 ③ ㉡이 나타난 두 번째 문장: 첫 어절, 마지막 어절

■ 예시 답안

정답

- ① 김생은, 앉았다
 ② 이곳이, 어디입니까(?)
 ③ 내가, 왔습니까(?)

해설

제시문 「상사동기」에 나타난 인물 김생의 성격화의 근거를 찾아 제시하면 된다.

㉠: ‘김생은 옛 연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여 상황을 조성’하는 장면은 김생이 유가행차 중 취기가 오른 장면,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에 나온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장면은 김생이 술에 취해 말에서 떨어진 것처럼 연기하는 장면이다.

㉡: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김생이 이미 깨어 있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디이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김생의 말은 “이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이 두 대화이며, 이 대화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면 된다. 순서는 상관없다.

■ 채점 기준

- ①~③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②와 ③의 제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 없음.

답안	배점
① 김생은, 앉았다	6점
② 이곳이, 어디입니까(?)	2점
③ 내가, 왔습니까(?)	2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마는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랐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꿈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삐죽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 장석남,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다가 떠오르는 상념들을 차분하게 들려주는 형식의 시이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화가 박수근의 작품과 함께 그의 삶의 에피소드를 환기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예찬하고, 후반부에서는 삶과 예술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근원적인 애상감을 질문의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외출하기 전에 빨래를 개어놓고 나갔다는 에피소드를 통해 화가로서 박수근의 삶은 생활인의 모습과 겹쳐지는데, 이를 (①)(이)라는 신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로 압축한다. 화자는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곳곳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간 화백을 ‘성자’, ‘멋쟁이’ 등의 말로 예찬하기도 한다. 두 번째 행부터는 시상이 전환되는데, 화자는 박수근의 작품과 삶의 에피소드로부터 한발 물러나서 화가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것들을 헤아려 본다. 화가가 그림의 주제로 삼았던 ‘그리움’이나 ‘가난’과 함께 그의 삶 속에 존재했을 ‘햇빛’이나 ‘삐죽새 소리’ 등이 다 어떻게 되었고 무엇이 되어 오는지 궁금해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화자에게 화가의 죽음과 사라짐을 떠올리게 하여 애상감을 갖게 한다. 죽음과 관련한 존재의 유한성은 비단 박수근만의 것은 아니기에 화자는 인간과 예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애상감을 (②)(이)라는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손(등)’ 또는 ‘손길’
- ② (다) 슬픈 일(들)

해설

- ① ‘손(등)’ 또는 ‘손길’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화가 박수근의 작품과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통해 작품의 주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작품의 전체에서 화가 박수근의 면모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손이다. 손은 화자에게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신체부분이면서, 작중에는 외출하기 전에 빨래를 개는 소탈하고 다정한 모습을

비출 때에도 부각되는 이미지이다. 시의 화자는 이런 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엄함, 멋쟁이 등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② (다) 슬픈 일(들)

작품 전체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대상-이미지로 ‘손’을 들 수 있으며, 그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애상감’으로 그 애상감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는 “슬픈 일들”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손(등)’ 또는 ‘손길’	5점
② (다) 슬픈 일(들)	5점

2024학년도 자연계 F형

문항 1

※ 다음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에 대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직업 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1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국가·지방 자치 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총수의 5/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6%,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겨우 충족한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하기 불편하지 않은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를 찾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현행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를 비롯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 직업 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 1]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도입 시기와 장애인 의무 고용의 내용을 제시하여 제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② 현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독자가 현재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시 답안

정답

- ① 1991년에, 있다
- ② 하지만, 수준이다

해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서 글쓴이의 글쓰기 전략이 드러난 부분을 찾는 문제이다. <보기>의 ①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도입 시기와 장애인 의무 고용의 내용이 첫 문단에 나타나 있다. 첫 문단의 두 번째 문장, “1991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국가·지방 자치 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총수의 5/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에 도입시기 1991년과 의무고용의 범위내용이 나타난다.

② 현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의 구체적인 수치는 두 번째 문단 시작에 나온다. “하지만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6%,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겨우 충족한 수준이다.”에 현재의 장애인 고용률이 나온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1991년에, 있다	5점
② 하지만, 수준이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3)

사용자가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의 실행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 체제는 대기 목록인 ‘대기열’에 실행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등록했다가, 이 중 하나를 골라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할당하고 동시에 대기열에서는 삭제한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CPU를 할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10초 길이의 음악이 재생 후 종료되었다면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 CPU를 할당한 10초를 음악 재생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라 한다. 한 개의 CPU에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할당할 수 있어서 대기열에 등록된 것 중 어느 것을 할당할지는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 스케줄링이 결정한다.

스케줄링의 성능은 ‘시스템 입장’과 ‘사용자 입장’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가 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일을 할수록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CPU가 일을 한 시간의 비율인 CPU 이용률이 높거나, 단위 시간당 프로그램을 처리한 개수인 작업 처리량이 많을수록 고성능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CPU를 할당받아야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프로그램 각각의 대기 시간의 합인 ‘총 대기 시간’이 적을수록 고성능이다.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P1, P2, P3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스케줄링의 경우 각각의 대기 시간을 구하는 방식은, P1은 즉시 실행되므로 대기 시간은 0이 되며, P2의 대기 시간은 P1의 실행 시간과 같으며, P3의 대기 시간은 P1과 P2의 실행 시간의 합과 같다.

2000년대 이전의 대다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CPU가 한 개뿐이었다. 이 컴퓨터에 실행 시간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대기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이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거나, 조금씩 번갈아 가며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스케줄링이 고안되었다.

FCFS(First-Come First-Served) 방식은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며,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프로그램에 CPU를 할당한다. 한편 ㉠RR(Round-Robin) 방식은 등록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지만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한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최대 할당 시간만큼만 CPU를 할당하고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반면에 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되며, 동시에 대기열의 다음 순서인 프로그램에 CPU를 할당한다. 또한 SJF(Shortest Job First) 방식이 있는데, 이는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 각각의 실행 시간을 계산해 이 값이 가장 짧은 프로그램에 CPU를 우선 할당한다. 그리고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해야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CPU를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었다. 이때부터는 일부 CPU만 일하고 다른 CPU는 쉬는 상태를 방지하는 기술인 ‘이주’가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다. 가령 두 개의 CPU(CPU1과 CPU2)가 가진 각각의 대기열에 프로그램이 두 개씩 등록되었다고 가정하자. 얼마 후 CPU1 측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CPU2 측에는 종료된 것이 없다면, 운영 체제는 CPU2의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을 CPU1의 대기열로 옮겨 주는데 이를 이주라고 한다.

[문제 2] <보기1>은 제시문을 읽고 조사한 자료이고, <보기2>는 제시문과 <보기1>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보기2>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1>

스케줄링은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CPU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선점 방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선점 방식으로 분류된다.

- 『컴퓨터 개론』, ○○출판사

<보기2>

㉠은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식 중, (㉠) 방식의 스케줄링에 해당한다. 최대 할당 시간이 5초이며 ㉠의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하는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의 대기열에는 실행 시간이 각각 10초, 5초, 8초인 프로그램 X, Y, Z가 순서대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컴퓨터에서 처음 X가 실행된 후 CPU의 작동 시간에 따른 CPU의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PU 작업 시간	작업 시작	5초 후	10초 후	15초 후
CPU 작업 내용	X의 실행	Y의 실행	(㉡)의 종료, Z의 실행	(㉢)의 실행

㉠: _____ ㉡: _____ ㉢: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 선점 방식
- ㉡ Y
- ㉢ X

풀이

㉠ RR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하고, 최대 할당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 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되며, 동시에 대기열의 다음 순서인 프로그램에 CPU를 할당한다. 따라서 RR 방식은 현재 CPU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선점 방식에 해당한다.

㉡ <보기2>에서 CPU 작동 5초 후, Y가 실행된다. Y의 실행 시간은 5초이므로 CPU 작동 10초 후에 Y는 종료되고, 대기열에 있던 Z가 실행된다.

㉢ <보기2>에서 CPU 작동 10초 후 Z가 실행되는데, Z의 실행 시간은 8초이다. 이 CPU는 최대 할당 시간이 5초인 RR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CPU 작동 15초 후에는 Z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 되며, 대기열에 있던 X가 다시 실행된다. 이때 X는 CPU 작동과 함께 실행되었으나, 실행시간이 10초였기 때문에, CPU 작동 5초 후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에서 Z의 다음에 재등록된 상태였다.

■ 채점 기준

- ㉠~㉢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선점 (방식)	3점
㉡	Y	3점
㉢	X	4점

문항 3

[문제 3]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의 상황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보기1>

프로그램 A, B, C, D의 실행 시간은 각각 10초, 15초, 30초, 40초이다.

[상황1]: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의 대기열에 D, C, B, A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다.

[상황2]: 이주 기술이 사용되는 운영 체제에서 두 개의 CPU(CPU1과 CPU2)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두 개의 CPU는 각각의 대기열을 가진다. CPU1에는 A, B의 순서로, CPU2에는 C, D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다.

<보기2>

- [상황1]에서 FCFS 방식을 이용할 경우 B의 대기 시간은 (①)초가 되고,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B의 대기 시간은 (②)초가 된다.
- [상황2]에서 CPU1과 CPU2에 모두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 실행 시작 (③)초 후에 CPU2의 대기열에 있던 D가 CPU1의 대기열로 옮겨지는 이주가 일어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70 (초)
② 10 (초)
③ 25 (초)

풀이

<보기1>에 의하면 프로그램 A, B, C, D의 실행 시간은 각각 10초, 15초, 30초, 40초이다.

- ① [상황1]에서 FCFS 방식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D, C, B, A’가 된다. 이때 B의 대기시간은 D의 실행시간인 40초와 C의 실행시간인 30초를 합한 70초가 된다.
- ② [상황1]에서 SJF 방식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A, B, C, D’가 된다. 이때 B의 대기시간은 A의 실행시간인 10초가 된다.
- ③ [상황2]에서 CPU1과 CPU2에 모두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CPU1의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A, B’가 되고, CPU2의 프로그램 실행순서는 ‘C, D’가 된다. A의 실행시간은 10초이고, B의 실행시간은 15초 이므로, 프로그램 실행 시작 후 25초가 되면 CPU1에서는 모든 작업이 종료된다. 한편 C의 실행시간은 30초 이므로 프로그램 실행 시작 후 25초가 되었을 때, CPU2에서는 C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고, D는 대기열에 있는 상태이다. [상황2]의 컴퓨터에는 이주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실행 시작 25초 후에 CPU2의 대기열에 있던 D는 CPU1의 대기열로 옮겨지는 이주가 일어난다.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70(초)	3점
②	10(초)	3점
③	25(초)	4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껏 알려져 있는 지식과 관념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면,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모색하게 된다. 가추법(假推法)은 관찰된 사실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통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가추법을 정립한 철학자 퍼스는 다음의 논증을 사례로 들어 가추법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책상 위에 한 움큼의 하얀 콩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콩 옆에 놓인 자루를 보고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결과) 이 콩들은 하얗다.

(규칙) 이 자루에 들어 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

(사례)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

위 추론의 출발점인 ‘결과’는 관찰된 사실로서, 일반적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수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관찰된 사실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과 결합됨으로써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된다. 책상 위에 놓인 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의 자루를 보고 자루안의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며,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책상 위의 하얀 콩은 이 자루에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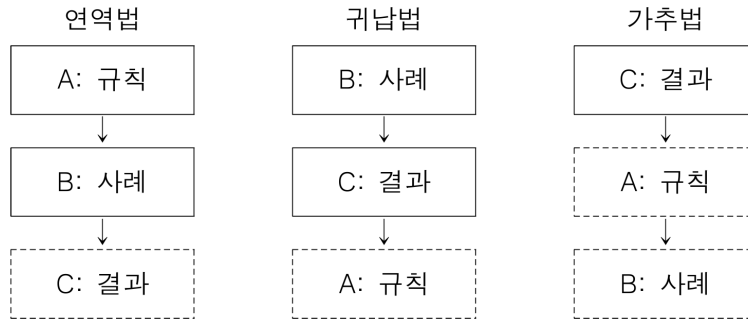
퍼스는 연역법 및 귀납법과의 비교를 통해 가추법의 특징을 구체화했다. 연역법은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추리이자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되는 해설적 추론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귀납법은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종합 추리이자 부분에서 전체, 특수 사례에서 일반으로 향하는 확장적 추론으로, 연역법과 달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다. 퍼스에 의하면 가추법은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추론에 해당하지만,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해 낼 뿐임에 반해 가추법이야말로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진정한 확장에 기여하는 추론이라고 하였다.

가추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 진리로서 주어지는 연역법의 규칙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퍼스는 ‘자연법칙’, ‘일반적인 진리’와 함께 ‘경험’ 등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하여 가추법의 ‘규칙’ 범주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진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과 설정된 가설의 결합은 이 둘에서 다루는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하며 이는 논증이 다루는 대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달리 가추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째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의해 추론의 목적 달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퍼스는 탐구를 ‘의심의 자극에 의해 야기된 것이자 믿음의 상태를 획득하려는 투쟁 과정’으로 규정하고 가추법은 이 과정을 관통하는 논리라고 하였다. 가추법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탐정의 추리에까지 널리 활용되는 추론 방식으로, 이는 그간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추측의 과정에 논리성을 부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 4] <보기1>은 제시문에 언급된 추론 방식들을 도식화한 것이고,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알파벳 기호를 쓰시오.

<보기1>



*실선 박스는 이미 증명된 명제를, 점선 박스는 추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명제를 의미함.

<보기2>

연역법의 C는 A에서 추론되지만 C는 이미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역법은 지식을 확장하지 못하는 추론의 방식이다. 연역법과는 달리, 가추법에서 도출되는 (①)은/는 C 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라는 점에서 가추법은 지식을 확장하는 추론 방식이다. 귀납법도 확장적인 추론 방식이긴 하지만 귀납법의 A는 B, C와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식의 확장은 아니다. 반면에 가추법의 (②)은/는 가설로 설정된 (③)을/를 매개로 추론된 것이기 때문에 가추법에서는 지식의 진정한 확장이 일어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B
② B
③ A

풀이

가추법의 ‘사례’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면서 동시에 가설적인 규칙인 ‘규칙’을 매개로 추론된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B	3점
②	B	3점
③	A	4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답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답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답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답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답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답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규원, 「문」

[나]

시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기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기법 중 아이러니는 알레고리와 함께 입체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기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아이러니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 흔히 아이러니를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문학 작품의 내적 또는 외적 요소에서 드러나는 대립과 긴장을 통해 상투적인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인식을 담아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아이러니는 대립과 긴장이 발생하는 지점에 따라 ‘상황 기반 아이러니’와 ‘모순 형용 아이러니’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황 기반 아이러니는 작품에 나타난 진술이 그 진술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의 관계에서 대립과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순 형용 아이러니’는 작품에 나타나는 진술 자체에서 대립과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삶과 죽음처럼 서로 대조되는 속성을 가진 두 항목이 작품에서 의미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두 항목 간의 의미적 모순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

한다. 작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립과 긴장, 즉 현실 세계의 모순을 아이러니를 통해 통합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문제 5]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가)는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하는 표현 기법으로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종류의 아이러니가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의 4연과 5연에서 ‘문’과 ‘담, 벽’이 의미적으로 연결될 때, 열림과 닫힘 또는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항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①)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연에서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 언제나 열려 있지 않’에서는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과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에서 (②)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는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아이러니를 통해 ‘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준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모순 형용 (아이러니)
- ② 상황 기반 (아이러니)

풀이

(가)는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하는 표현 기법으로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종류의 아이러니가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의 4연과 5연에서 ‘문’과 ‘담, 벽’이 의미적으로 연결될 때, 열림과 닫힘 또는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항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모순 형용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연에서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 언제나 열려 있지 않’에서는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과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에서 ‘상황 기반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는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아이러니를 통해 ‘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준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모순 형용 (아이러니)	5점
②	상황 기반 (아이러니)	5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창신동의 빈민가에 살다가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긴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규칙을 강조하고 양옥집의 일상을 통제한다.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아침 여섯시에 기상.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 가지고 손수 들고 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안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세 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 동안 나는 오전 열시경에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성 소리를 쪽 듣게 되고, 열두 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네 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오후 여섯 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십여 분 동안 잠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은 열 시 오륙 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의 내가 들어 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正式)의 생활.

(중략)

이윽고 서 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 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 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 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 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將帥)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家寶)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 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 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 김승옥, 「역사」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제시문에서 <보기>의 ㉠과 ㉡이 나타나는 문단을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역사」에는 ‘서 씨’와 ‘주인 할아버지’ 두 인물을 중심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다른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먼저 ‘주인 할아버지’는 자신이 정한 규칙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나’는 자유를 박탈당한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인 할아버지’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리고 ‘서 씨’에게 과거는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인식되는데, ‘서 씨’는 현대적 삶에 맞서 쇠락해 가는 가치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보존하며 살아간다. ㉡‘서 씨’는 ‘서 씨’의 행동에 전율을 느끼는 ‘나’ 앞에서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낸다.

① ㉠이 나타난 문단: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이 나타난 문단: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아침, 생활
- ② 역사, 있었다

풀이

- ①: 제시문의 두 번째 단락에는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규칙제일주의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며, 여기에는 규칙을 강요하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역사, 서 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에서 ‘서 씨’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나’ 앞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다. 이를 통해 ‘서 씨’가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긍심을 ‘나’에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아침, 생활	3점
②	역사, 있었다	7점

2024학년도 자연계 G형

문항 1

※ 다음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십시오.

찬 성: 저희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죄, 중대한 성폭력 범죄,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다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처사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식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공소 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자들의 범죄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 대: 저희는 국가가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끝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더욱이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계속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나면 새로운 사건에 투입될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찬 성: 물론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면 사회적 이득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공소 시효가 없어질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득의 크기는 충분히 고려하신 건가요?

반 대: 저희는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나 끝내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1] <보기>는 제시문의 ‘반대’ 측 주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

- ①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채택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② 찬성 측이 제시한 질문에 내포된 전제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공소, 있습니다
- ② 저희는, 못했습니다

풀이

- ①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채택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에 해당하는 것은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끝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이다.

첫 어절: 공소, 마지막 어절: 있습니다.

② 찬성 측이 제시한 질문에 내포된 전제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는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나 끝내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에 나타난다. 따라서

첫 어절: 저희는, 마지막 어절: 못했습니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공소, 있습니다	5점
②	저희는, 못했습니다	5점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의 특성이 각각 다른 이유는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자의 결합 방식 중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쌍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공유 결합은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 결합은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다.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없고,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공간 영역, 즉 전자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궤도 함수인 오비탈로 규정되는 영역 내에 존재한다.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이며, 이는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의 일부분이 두 원자를 연결하는 일직선 축에서 서로 겹치며 형성된 결합으로 가장 단단한 결합이다.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결합 궤도의 영역에 존재하게 되며 두 원자는 그 전자들을 공유한다.

이중 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두 쌍의 전자, 즉 전자 4개를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다.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가지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달리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이 90도 각도로 측면으로 겹치며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기에 결합력이 약하다. 또한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자유 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 이중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도 단일 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합 궤도 함수로 표시되는 영역 내에 존재하며, 이때 결합 궤도 함수의 종류는 2개가 된다. 이렇게 동일한 원자라도 결합 형식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형성된 분자 혹은 물질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소체로는 탄소(C) 동소체가 있다.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특징이 달라진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에 있는 4개 전자가 이웃에 위치한 탄소 원자 4개의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모양은 마치 정사면체와 같다. 이때 형성된 4개의 공유 결합은 모두 단일 결합이며, 모든 탄소 원자들이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높다. 이와 달리 흑연에서 각 탄소들은 이웃에 위치한 탄소 3개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 한 개의 결합은 파이 결합을 동시에 포함한다.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교대로 이어져 있는 흑연은 그런 이유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결국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성 차이는 결합 형식에서 비롯된다.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6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되어 있으므로 마치 벌집의 형태와 유사하다. 흑연은 벌집 모양의 평면이 여러 겹으로 쌓여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하나의 층에서 탄소 원자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층과 층 사이는 공유 결합이 아닌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합력은 매우 약하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달리 각 층이 분리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때 한 개로 분리된 층은 층이 여러 개 쌓여 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하며, 그래핀이 원통 형태로 둥글게 말려 있는 모양의 물질을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한다.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는 흑연처럼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높은 열전도율이나 강한 강도를 가지는 등 흑연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과 ㉡을 이해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과 ㉡은 모두 탄소 원자 간의 공유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은 ㉠에 비해 강도가 낮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과 ㉡이 가지고 있는 공유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른 공유 결합의 종류 중, (①)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반해, ㉡은 (①) 결합뿐만 아니라 (②) 결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단일 결합
②: 이중 결합

해설

다이아몬드는 4개의 공유 결합 모두가 단일 결합인데 반해, 흑연은 하나의 공유 결합이 파이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단일 (결합)	5점
② 이중 (결합)	5점

문항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라는 의미만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무력하고 텅 빈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회화와 조각, 소설과 연극, 철학과 심리학 이론들이 공간이 지닌 구성적인 기능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공간이 충만하고 능동적이며 창조성을 지닌 유의미한 공간으로 재인식되었다. 기존 견해를 따르는 미술 비평가들은 공간과 관련하여 회화의 제재를 긍정적 공간, 배경을 부정적 공간이라 불렀다. 그런데 재인식된 공간은 배경 그 자체가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부정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회화에서 공간은 입체파에 이르러 하나의 구성적 요소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브라크는 공간에 대상과 동일한 색, 질감, 실질성을 부여하고, 공간과 대상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뒤섞어 버렸다. 브라크는 입체파의 매력에 대해 자신이 감각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연 안에서 ‘감축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그는 대상 주변에서 느껴지는 움직임, 지형에 대한 느낌, 사물들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회화에서 대상과 공간의 관계는 음악에서 소리와 침묵의 관계로 치환해 볼 수 있다. 음악에서 침묵은 소리와 리듬을 인식하기 위한 요소이다. 음악사 전반에 걸쳐서 침묵이 중요한 의미를 지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음악에서 침묵은 일반적으로 악장의 끝부분에 놓여 다만 악장과 악장을 구별 지었을 뿐이다. 그런데 침묵의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음악에서는 악절 중간에 갑자기 휴지가 등장함으로써 침묵이 음악 구성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

현대 음악의 작곡가들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두드러지게 침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로저 세텍은 스트라빈스키의 1910년 작품 <불새>의 피날레에는 음악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번의 침묵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침묵은 긍정적인 부정적 시간이다. 안톤 폰 베베른은 이러한 침묵의 창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매우 간결해서 어느 악장도 1분을 넘지 않았다. 그토록 간결한 악장의 연주들이 침묵의 시간과 서로 어울리면서 침묵들로 자주,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된다. 어떤 음악 평론가는 베베른의 음악에서 휴지는 정지가 아니라, 리듬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는 공간·시간 경험을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뚜렷한 구분 선을 지웠다. 이는 물리학 분야에서는 충만한 물체와 텅 빈 공간 사이에, 회화에서는 제재와 배경 사이에, 음악에서는 소리와 침묵 사이에, 지각에서는 형상과 배경 사이에 그어졌던 절대적 구분 선의 붕괴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텅 빈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들이 구성 요소의 하나로 기능한다는 인식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구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귀족적 특권의 붕괴, 생활의 세속화 등과 ‘위계의 평준화’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 3]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탐구 활동으로 제시문의 ㉠의 작품을 찾아 감상한 것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이 그림은 ㉠의 <바이올린과 물병이 있는 정물>이다. 이 그림의 주요 제재는 바이올린이고 석고, 유리, 나무, 종이, 공간 등은 바이올린의 주변을 둘러싼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이올린의 목 부분은 나름대로 윤곽이 남아 있지만 몸통은 여러 부분들로 조각나 대상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공간과 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 그림에서 석고, 유리, 나무, 종이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흐름 속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인 바이올린과 공간을 확실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브라크는 “파편화시킴으로써 저는 공간과 공간 안의 움직임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었으며 공간을 창조해 내고서야 비로소 대상들도 화폭 안으로 끌어들여 표현해 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브라크는 바이올린의 일부, 석고, 유리, 나무 등을 파편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이 그림의 바이올린은 음악의 (①)(으)로, 석고, 유리, 나무, 종이, 공간 등은 음악의 (②)(으)로 치환되어 이해될 수 있다. ㉠이 이 그림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낸 것처럼, 현대 음악에서는 안톤 폰 베베른의 사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②)을/를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기도 한다.

①: _____

②: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소리’ 또는 ‘리듬’ 또는 ‘소리와 리듬’
② ‘침묵’ 또는 ‘휴지’

해설

문제의 그림은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물병이 있는 정물>이다. 이 그림의 주요 제재는 바이올린이고 석고, 유리, 나무, 종이 등은 공간을 이루고 있다. 만약 브라크의 이 그림을 음악으로 치환해 본다면, 이 그림의 바이올린은 음악의 ‘소리’와 ‘리듬’에 해당하고, 석고, 유리, 나무, 종이 등은 음악의 ‘침묵’ 또는 ‘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이올린의 목 부분은 나름대로 윤곽이 남아 있지만 몸통은 여러 부분들로 조각나 대상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공간과 섞여 있다는 점이다. 석고, 유리, 나무, 종이, 공간이 유사한 형태의 흐름 속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과 확실히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를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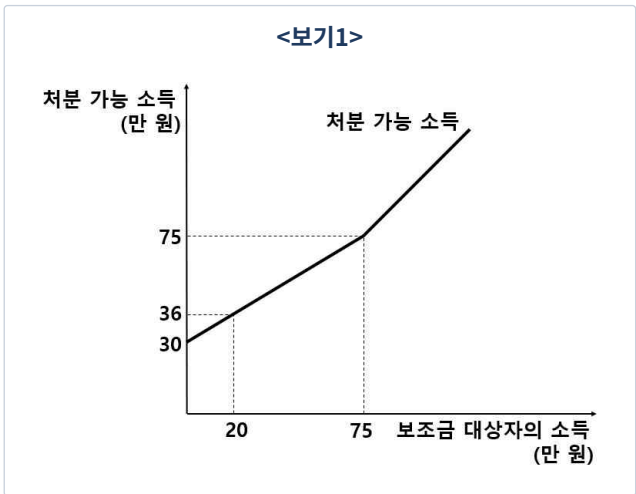
답안	배점
① ‘소리’ 또는 ‘리듬’ 또는 ‘소리와 리듬’	5점
② ‘침묵’ 또는 ‘휴지’	5점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負)의 소득세 제도가 있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 갈수록 보조금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 간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이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떼떽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문제 4] <보기1>은 제시문의 ㉠의 한 사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보기2>의 ㉡~㉣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보기2>

<보기1> 상황에서 소득이 0원인 보조금 대상자 A의 처분 가능 소득은 (㉡)만 원이다. 만약 A의 소득이 20만 원이 되면 처분 가능 소득은 36만 원이 되므로, 이때 A가 받는 보조금은 (㉢)만 원임을 알 수 있다. A의 소득이 0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갈 때, A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 _____ ㉢: _____ ㉣: _____

예시 답안

- 정답**
- ① 30
 - ② 16
 - ③ 14

해설

①: <보기1> 상황에서 소득이 0원인 보조금 대상자 A의 처분 가능 소득은 30만 원이다.

- ②: A의 소득이 20만 원이 되면 처분 가능 소득은 36만 원이 되므로, 이때 A가 받는 보조금은 36에서 20을 뺀 16만 원이다.
- ③: 따라서 A의 소득이 20만 원일 때 지급받는 보조금은 0원일 때 받는 보조금보다 14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 채점 기준

- ①~③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30 (‘30만 (원)’, ‘300,000 (원)’도 정답으로 처리함. 이외에는 모두 오답으로 처리함.)	2점
② 16 (‘16만 (원)’, ‘160,000 (원)’도 정답으로 처리함. 이외에는 모두 오답으로 처리함.)	5점
③ 14 (‘14만 (원)’, ‘140,000 (원)’도 정답으로 처리함. 이외에는 모두 오답으로 처리함.)	3점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월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 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눕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재주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題)를 빌려」

[문제 5]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이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시행 두 개를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

이 시는 글 쓰는 일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가난한 가장인 화자의 비애감을 읊은 작품이다. 화자는 며칠 후면 비워 줘야 하는 방에서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화자의 이러한 비애감은 비유와 설의적 표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에는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뿐만 아니라,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애정도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감정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잠 못 드는 가장의 비애’라는 이 시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예시 답안

정답

- ① 바로, 준다
 ② 웅크리고, 대본다

해설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이미지는 작품의 8행(바로 눕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과 15행(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에 나타난다. 다른 행들에는 가족을 향한 애절한 시선이 있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화자의 행동은 두 행뿐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①과 ②의 제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음.

답안	배점
① 바로, 준다	5점
② 웅크리고, 대본다	5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유백로는 소상 죽림에서 조은하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유백로가 장성하자 병부 상서가 유백로를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거절당하고, 최국양도 조은하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지만 거절당한다. 조은하를 찾는 데 실패한 유백로는 병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오랑캐 가달이 쳐들어오자 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전장에 나간 유백로는 최국양의 모함으로 가달에게 붙잡히는데, 이때 조은하가 가달을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출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전한다.

대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니 천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神將)이 내려와 돕는다. 저 가달이 아무리 용맹한들 어찌 당하리오? 두려워하여 일시에 말에서 내려 항복하니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당하(堂下)에 꿇리고 크게 꾸짖어,

“네가 유 원수를 지금 모셔 와야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은즉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가달이 급히 마대영에게 명하여 유 원수를 모셔 오라 하거늘 마대영이 급히 달려 유 원수의 곳에 나아가 고하기를,

“원수는 소장(小將)이 구함이 아니런들 벌써 위태하셨을 터이니, 소장의 공을 어찌 모르소서.”

하고 수레에 싣고 몰아가거늘, 유 원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에 다다르니, 일위 소년 대장이 맞아 이르기,

“장군이 대대 명가 자손으로 이렇듯 곤함이 모두 운명이라, 안심하여 개의치 마소서.”

하거늘 유 원수가 눈을 들어 본즉 이는 평생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손을 들어 칭찬하며 이르기,

“늙신지는 모르거니와 뜻밖에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 본국의 귀신이 되게 하시니 백골난망(白骨難忘)이 오나,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되어 군부(軍府)를 욕되게 하오니, 무슨 면목으로 군부를 뵈오리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죄를 갚을까 하나이다.”

대원수가 재삼 위로하기를,

“장수 되어 일승일패(一勝一敗)는 병가상사(兵家常事)이오니, 과히 번뇌치 마소서.”

유 원수가 예를 갖추어 인사하더라.

가달과 마대영을 수레에 싣고 회군(回軍)할새, 먼저 승전한 첩서(捷書)를 올리고 승전고(勝戰鼓)를 울리며 행할새, 유 원수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대원수가 묻기를

“장군이 이제 사지(死地)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오시니, 만행(萬幸)이거늘 어찌 이렇듯 수척하시뇨?”

유 원수가 차탄(嗟歎)하여 이르기,

“소장이 불충불효한 죄를 짓고 돌아오니 무엇이 즐거우리이까? 원수가 이렇듯 유념하시니 황공(惶恐) 불안하여이다.”

대원수가 짐짓 묻기를,

“듣자온즉 원수가 일개 여자를 위하여 자원 출전하셨다 하오니, 이 말이 옳으니잇가?”

유 원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거늘, 대원수가 또 가로되,

“장군이 이미 노중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 주었던 그 여자가 장성하매 백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하매, 사면으로 찾아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보고 기절하여 죽었다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유 원수가 듣고 비참하여 탄식하기를,

“소장이 군부에게 욕을 끼치고, 또 여자에게 원한을 쌓게 하였으니,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대원수가 미소하고 백학선을 내어 부치거늘, 유 원수가 이윽히 보다가 묻기를,

“원수가 그 부채를 어디서 얻었나이까?”

대원수가 가로되

“소장의 조부께서 상강 현령으로 계실 때에 용왕을 현몽(現夢)하고 얻으신 것이니이다.”

유 원수가 다시 묻지 아니하고 내심 헤아리기를 ‘세상에 같은 부채도 있도다.’하고 재삼 보거늘 대원수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하여,

“장군이 정신이 가물거려 친히 쓴 글씨를 몰라보시는도다.”

– 작자 미상, 「백학선전」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제시문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 쓰고, ㉡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

고전 소설에서는 남녀 간의 결연의 증거로 ㉠‘징표(徵標)’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징표는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데, 하늘의 권위나 사대부 가문의 위상을 상징함으로써 징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표는 인물들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연이 되는 것을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서로 간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거나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징표가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인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① ㉠에 해당하는 단어: _____

② ㉡에 해당하는 문장: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백학선’ 또는 ‘부채’
- ② 대원수가, 돕는지라

해설

- ①: 작품에서 징표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인연을 매개하고,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소재는 백학선(부채)이다.
- ②: ‘대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니 천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神將)이 내려와 돕는지라.’에서 인물은 백학선의 신이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 채점 기준

- ①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②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답안	배점
① ‘백학선’ 또는 ‘부채’	5점
② 대원수가, 돕는지라	5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